장군님과 체육



장군님과 체육



조선・평양・체육출판사

1996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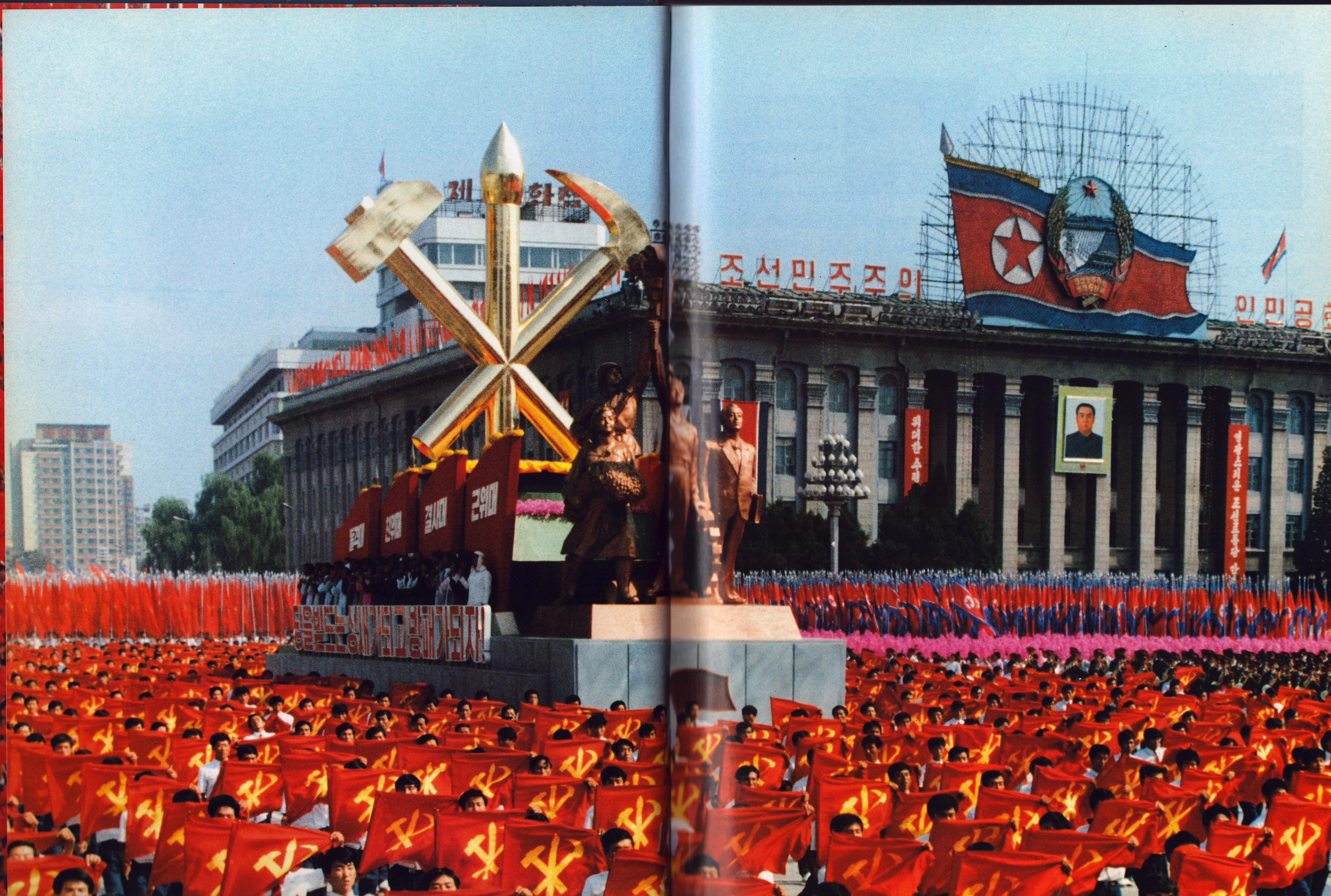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我们党和人民的伟大领导者 金正日同志




조선민주주의
인민공
결사대
근위대



우리 나라에서 체육사업은 명실공히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며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체육사업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한부분이며 우리 당이 전략적인 투쟁과업의 하나로 내세운 성스러운 사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사람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체육을 발전시켜야 전체 인민이 건강하여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될수 있으며 우리 체육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 나가 주체조선의 명예를 떨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적인 체육건설의 력사적위업은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체육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체육이 승리의 한길로 나가도록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체육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시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시기 위하여 체육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튼튼히 세우며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체육사업의 억년 드놀지 않을 기둥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견지에서 체육의 본질에 관한 사상을 밝혀주시고 그의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체육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체적인 체육건설의 내용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주체적인 체육건설의 실현을 위한 인적 및 물질적담보와 사회적담보,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문제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으로하여 주체의 체육사상리론은 전면적으로 완성된 체계와 정연성을 갖춘 완벽한 사상리론으로 심화발전하게 되였으며 체육을 대중화하고 체육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체적인 체육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빛나는 완성을 위한 확고한 사상리론적담보가 마련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조직력과 혁명적전개력, 능숙한 수완으로 전체 인민이 체육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떨쳐나서도록 하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온 나라 방방곡곡의 학교와 공장, 기업소, 농촌마을들이 체육활동으로 들끓게 하시였으며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집단체조창조사업을 이끄시여 우리 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집단체조왕국으로 만드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체육인들과 함께 계시며 백전백승의 체육기술과 전법을 배워주시고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으며



주체적인 전술체계를 완성하시여 우리 나라 선수들이 국제체육무대에서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슬기를 떨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체육사업의 물질적토대를 닦는 사업에도 큰 힘을 돌리시여 체육기자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권위에 상응하게 만년대계의 현대적인 체육시설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우리 체육인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을 위한 력사적진군길에 혁명전사로 내세워주시고 그들모두가 혁명가의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하나하나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친부모도 헤아리지 못한 재능의 싹을 남먼저 찾아주시고 키워주시였으며 청춘의 지혜와 불타는 열정, 무비의 담력을 안겨주시여 우리 체육인들을 무적필승의 강자로 세계무대에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에 나가 공화국기발을 올렸을 때에는 누구보다 제일 기뻐하시며 나라의 큰 경사로, 민족의 자랑으로 높이 내세워주시고 값높은 명예칭호와 천만년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여 체육인들의 삶이 시대와 력사 앞에 길이 빛나도록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오늘 우리 체육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체육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끄떡함이 없이 새로운 승리의 령마루를 향해 승승장구하고있다.

위대하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고 비범하고 담대한 령도의 거장이시며 한없이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인간중의 인간이시고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령장중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체육을 이끄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락관적이며 휘황찬란하다.





체육이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으로 되도록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체육이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체육사상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과 체육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나라의 대중체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체육을 대중화하는데서 학교체육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며 조국의 미래인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 학교체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교체육과 함께 근로자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61년 7월 6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하여》**에서 체육의 대중화의 본질과 필요성,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여 우리 혁명과 체육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한 곧바른 지름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61년 4월 27일 평양방직기계공장(당시 평양방직기계제작소)과 1963년 5월 22일 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여 로동자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그들에게 문명한 체육문화생활을 마련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에 들어와 대중체육사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앙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비상설체육위원회를 조직하며 아침체조와 달리기를 매일 일과에 포함시켜 진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고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과 정세의 요구에 맞게 1974년 6월 29일에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을 우리 당 체육정책의 기본내용으로, 주체체육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력사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여 국방체육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체육으로 들끓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들에서 군중체육경기를 자주 조직하도록 하시였으며 1970년 8월에 제1차 예술인체육대회를 마련하여 군중체육대회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게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체력검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1987년 6월 25일 인민체력검정월간을 8~9월로 정하도록 하시였으며 매시기마다 이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중적인 투쟁과 집단적인 혁신으로 대중체육발전을 다그치기 위하여 1979년 6월 21일에는 모범체육군창조운동을 발기하시고 온 나라에 그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 기관, 기업소들과 농장들에 3만 2천여개의 비상설군중체육협회가 활발히 운영되고있으며 근로자들속에서 1만보걷기운동과 민족체육, 국방체육위주의 대중체육활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대중체육발전을 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안변군과 북청군을 비롯한 근 30개의 군이 모범체육군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만수대창작사,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한 120여개의 기관, 기업소들이 모범체육기관 기업소 로 되였다.

온 나라에 체육으로 들끓는 아름다운 사회적풍치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 생활기풍은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안아온 위대한 결실이다.



체육경기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대중체육사업을 강화하여야 인민들이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으며 나라의 체육을 중임없이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加强群体工作，强健国民体魄，不断发展祖国体育事业。金正日

김 정 일



학생소년들의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학교체육에 선차적 힘을 넣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체육을 대중화하는데서 언제나 학교체육사업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한 청소년학생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60년 10월 5일과 1970년 8월 26일을 비롯한 여러 말씀들에서 체육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학생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체육시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키크기운동을 많이 하는 방향에서 체육교육내용을 개편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획기적인 대책들을 취해주시였다.

1970년 6월 22일 원산중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국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속에서 키크기운동을 비롯한 과외체육활동을 널리 벌리도록 투쟁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학교체육사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1983년 12월 1일 모범체육학교쟁취운동을 발기하시였으며 체육종목별 전문화소조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1974년 4월 18일에는 온 나라의 모든 학교들에서 신계군 대정고등중학교의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지도로 오늘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서 체육수업의 질적수준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키가 기준치를 훨씬 넘어섰으며 평양창전고등중학교를 비롯한 근 640개의 학교들이 2중모범체육학교, 모범체육학교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전국적으로 18,390여개의 종목별 전문화소조에 35만명의 학생들이 망라되여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체육수업시간



과외체육으로 흥성이는 학생소년들



가을철소년운동회



학생소년들의 집단체조



대동강을 헤염쳐 건느는 학생소년들



예술체조
소조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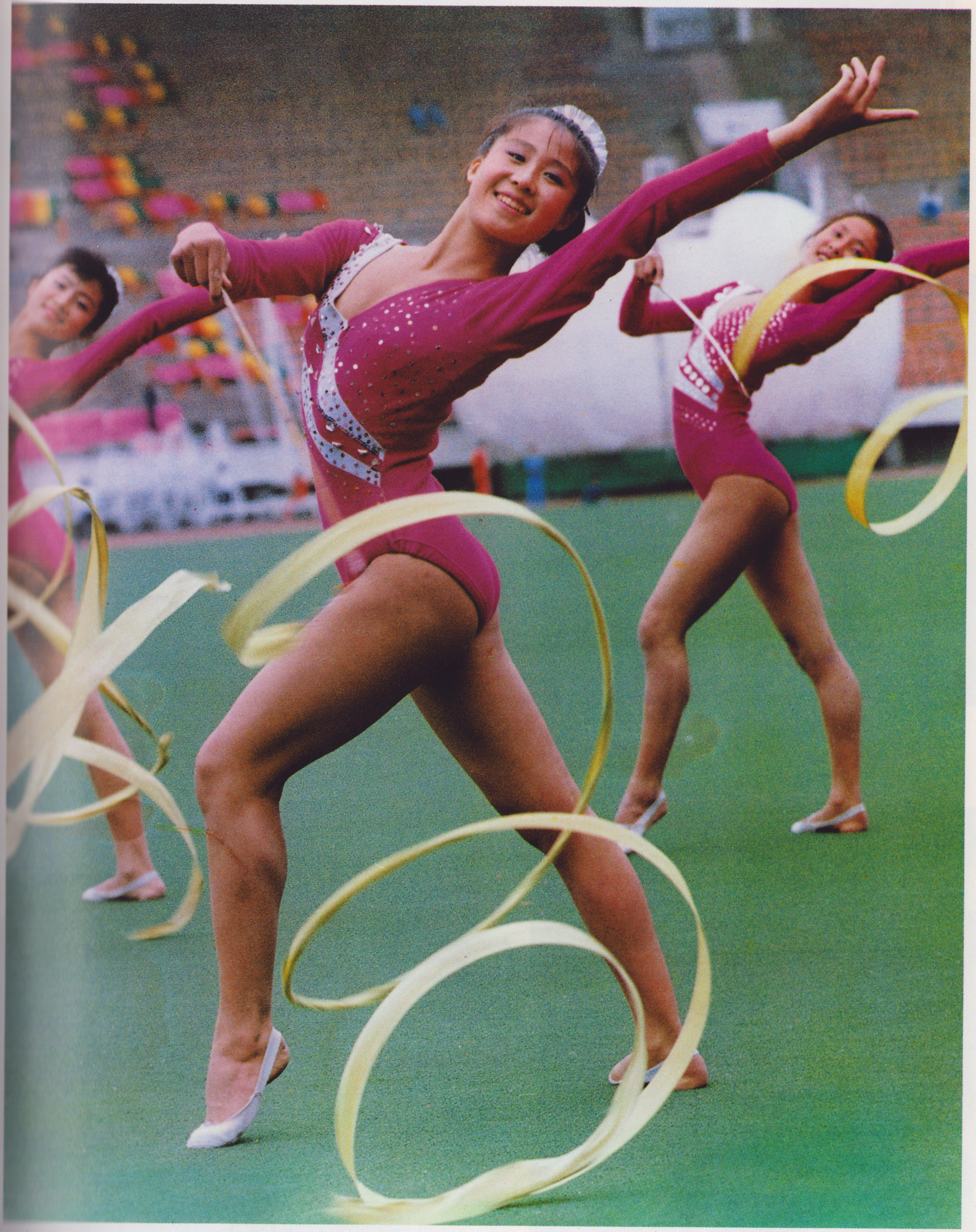
축구소조



모범체육학교기발



탁구소조



학생소년들의 몸매를 조화롭게 하는 댕기운동



체육사업발전을 위한 강령적말씀을 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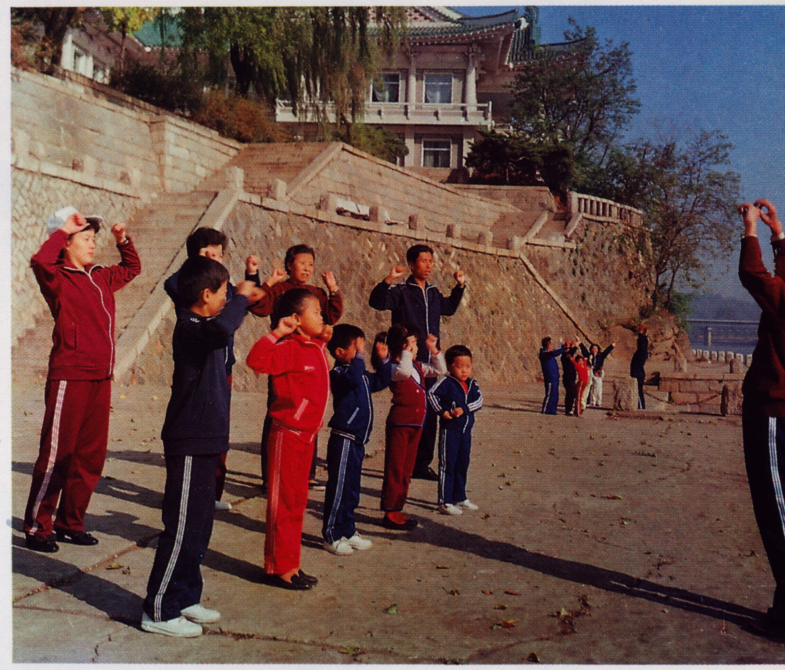


걷기운동을 하는 중앙기관 정무원들

온나라를 체육으로 흥성이도록 이끄시여



청춘의 활력으로



가족아침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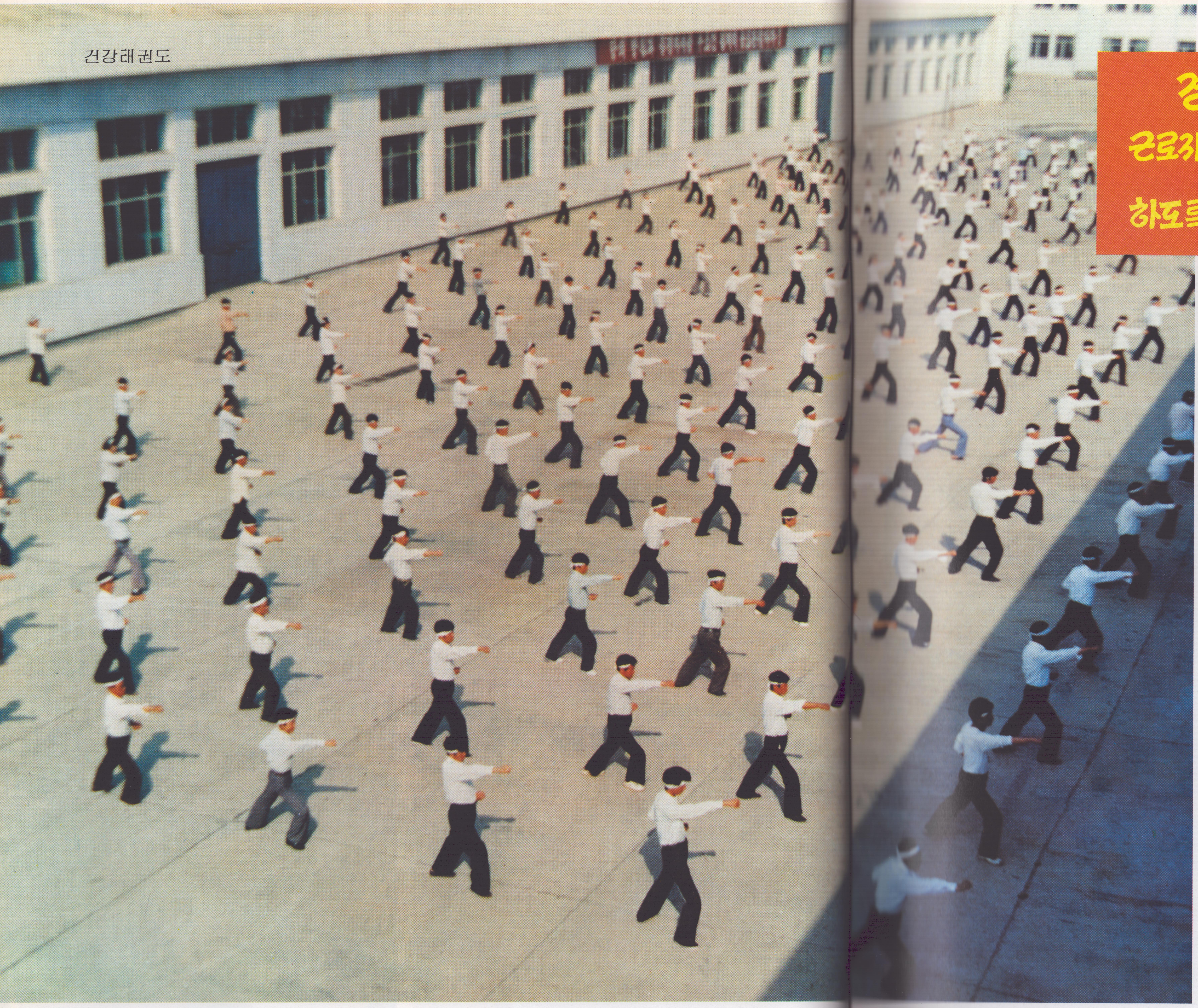


정상화된 기업소 아침달리기



로동자들의 업간체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창작보급 하도록하신 대중체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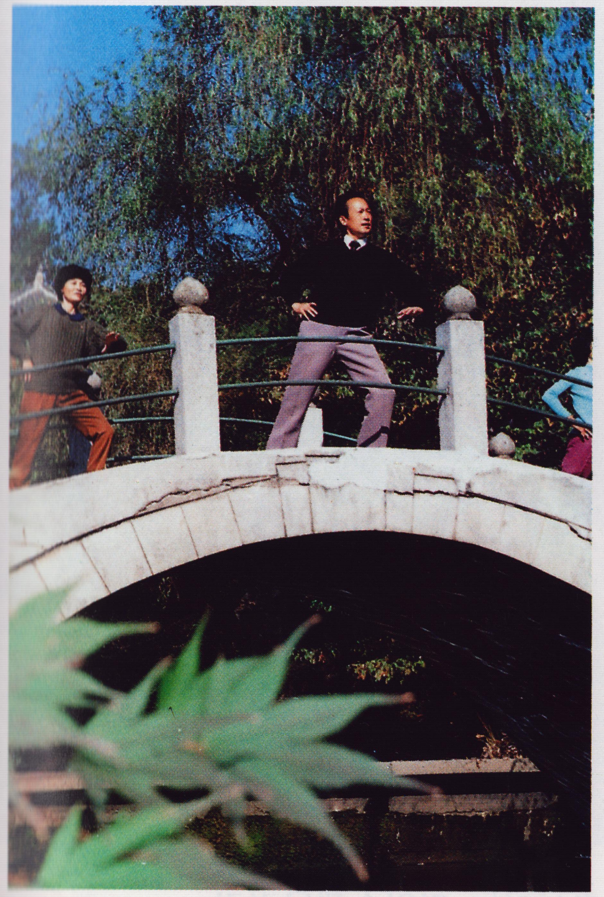
건강태권도





대중률동체조

健身操 健美操



로인률동체조



소년태권도



少年健美操

소년률동체조





흥성이는 기업소체육경기





표 창 장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체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시.군안의 인민들속에서 아침체조와 달리기를 정상화하며 학교체육을 발전시키고 체육구락부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평양시 선교구역에 모범체육구역칭호를 수여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87년 12월 3일

모범체육구역표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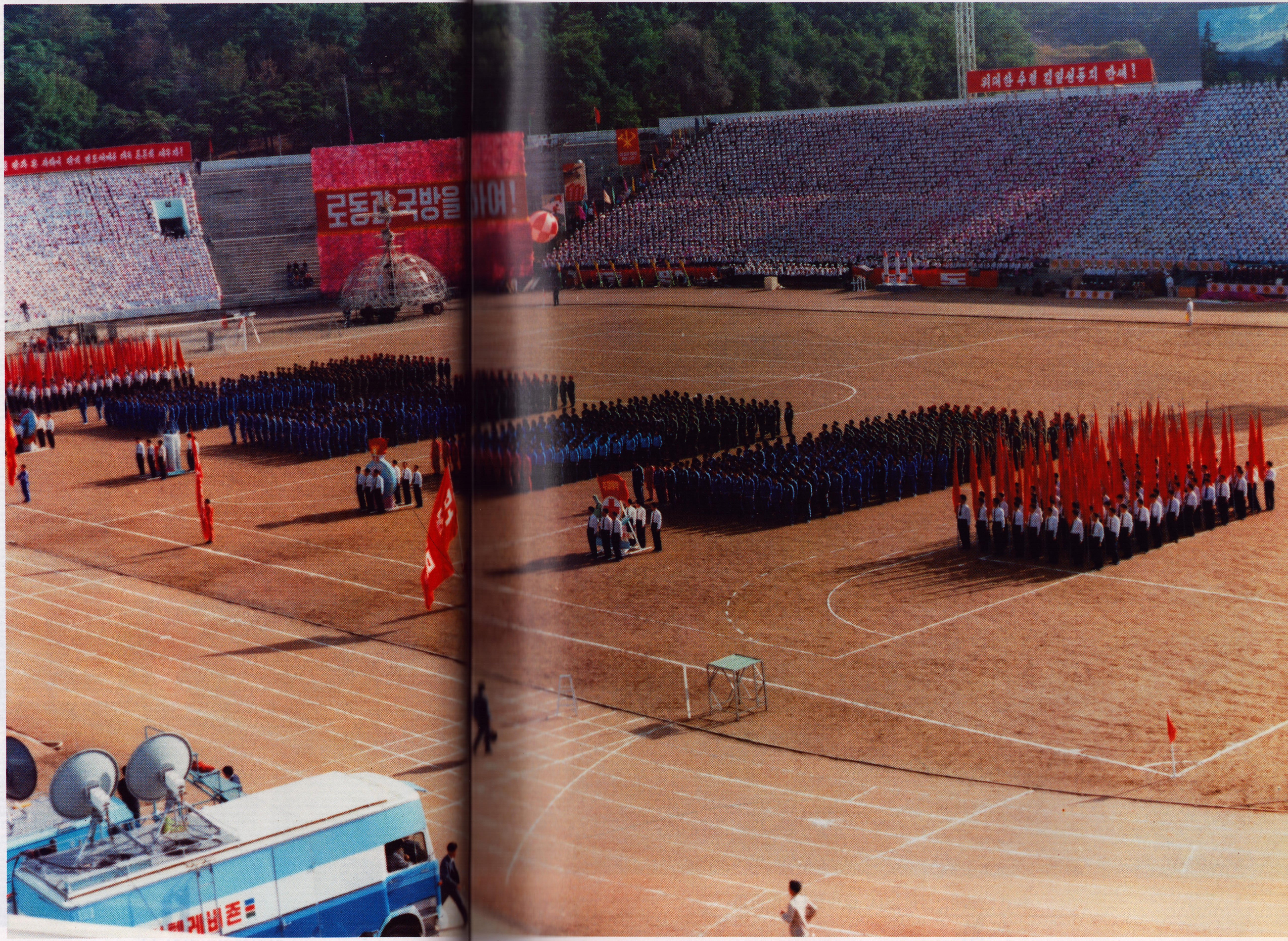


인민체력검정의 날

体质检测



등산길



비생산부문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집단의 단결력을 시위하는 바줄당기기

拔河



출판보도부문 응원자들



강의한 의지와 인내력을 키워주는 무장강행군

철조망극복경기	벼랑극복
담벽뛰어넘기경기	외나무다리건느기











출판부문과 무대부문 체육경기







우승한 단체에 수여하는 시상품들

向优胜者颁奖



민족경기—씨름



텔레비죤민족씨름경기



널뛰기



그네뛰기





70나이에도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며



체육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던 우리 혁명과 체육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육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려 체육의 모든 종목들에서 세계패권을 잡을데 대한 높은 목표와 과업을 제시하시고 몸소 진두에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시고 주체적인 체육사상의 요구대로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대로 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모든 종목에서 세계패권을 잡도록 하기 위하여 훈련과 경기, 선수들의 풍모와 자질에서 최상의 높이에 이른 본보기체육선수단을 꾸리시고 그 경험을 모든 종목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든 체육종목을 동시에 다 발전시키려고 하지 말고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몇개 종목에 힘을 집중하면서 그에 다른 종목들을 따라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중요종목들의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축구와 배구를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몸소 그들의 훈련과 경기를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였으며 세계강자들과의 경기를 끊임없이 조직하여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을 상징하는 사격과 권투를 발전시키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격종목을 추켜세우시기 위하여 체육선수단 사격장을 찾으시여 사격종목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온갖 훈련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하여주시였으며 백발백중 명사격의 묘리도 익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소년학생들속에서 탁구를 대중화하여 우수한 탁구선수후비들을 키워내시는 한편 체육선수단들의 탁구종목인원수를 늘이도록 하시였으며 주체적인 속도경기체계를 완성하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고 파악있는 체육종목들이 선차적으로 빨리 발전하고 전반적체육종목들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체육종목들이 많이 포치되여 자기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체육의 모든 종목들에서 세계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경기원칙, 경기방법문제에 빛나는 해명을 주시였으며 경기에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선수들의 체육기술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체육기술과 경기실력을 끊임없이 련마해온 우리의 체육인들은 1970년대 이후 수많은 국제경기들에 출전하여 독창적인 우리 식의 기술과 전술로써 맞다드는 강자들을 물리치고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다.



공로있는 체육인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现时期发展我国体育技术的根本方向是：优先发展全国人民喜闻乐见的、水平较高的体育项目。

> 현시기 우리 나라 체육기술발전의 기본방향은 우리 인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고 파악이 있는 종목들의 기술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다른 모든 종목들의 기술을 발전시켜 여기에 따라세우는것입니다.
>
> 김 정 일



체육인들이 올리는 맹세문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의 일부

체육기술을 우리 식으로!

체육사업에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향도는 사대와 교조를 불사르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체육분야에서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을 운운하면서 자기의것을 깔보고 남의것을 쳐다보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 사상잔재들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하여 1974년 3월 20일에는 체육기술을 우리 식대로 주체성있게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나라의 체육사업을 령도해오시던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체육기술발전의 원리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우리 식의 독창적인 체육전법인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방침도 제시해주시였다.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전법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4. 25축구선수단을 비롯한 여러 선수단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모든 종목들에서 선수들의 기술수법과 전술결합을 종래의 기성관념에만 매달리지 말고 철저히 우리 식대로 독특하면서도 기묘한 기술을 소유하며 그에 토대하여 전술체계와 전술방안도 새롭고 다양하게 세울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체육기술을 우리 식대로 빨리 발전시켜 가까운 시일안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이 있었기에 우리 체육인들은 종래의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룩상, 권투, 사격, 레스링, 력기, 탁구를 비롯한 많은 종목들에서 세계선수권을 보유할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체육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주체를 생명으로 하고 철두철미 우리 식의 전술과 기술로써 혁명적체육의 참다운 면모를 갖추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 체육인들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다.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여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몸소 훈련과 경기를 지도하시여

1972년 6월 2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체육을 새롭게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력사적인 이날에 4. 25체육단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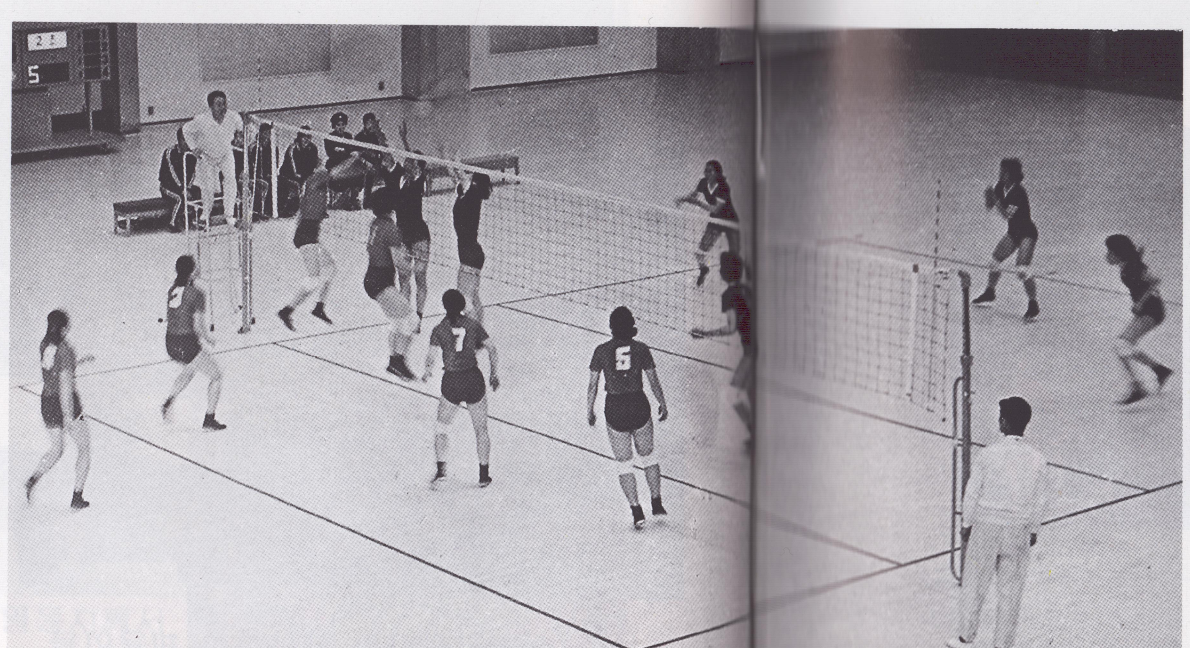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본보기체육단으로 갓 태여난 4. 25체육단이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싸워나갈수 있도록 천리혜안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나날에 언제나 체육인들속에 계시면서 몸소 지도원이 되시고 단장이 되시여 교수훈련계획작성으로부터 훈련내용과 방법, 조건에 이르기까지 선수들의 훈련과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더운 여름날, 눈비내리는 궂은날에도, 온 나라가 휴식하는 일요일과 명절날에도 4. 25축구선수단의 훈련경기를 지도해주시면서 문전돌입은 복식으로 들이대야 한다고, 공격수와 방어수와의 련계를 잘 보장하여 중간지대를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고, 공격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중장거리련락과 단번련락에 있다고 경기승리의 전술적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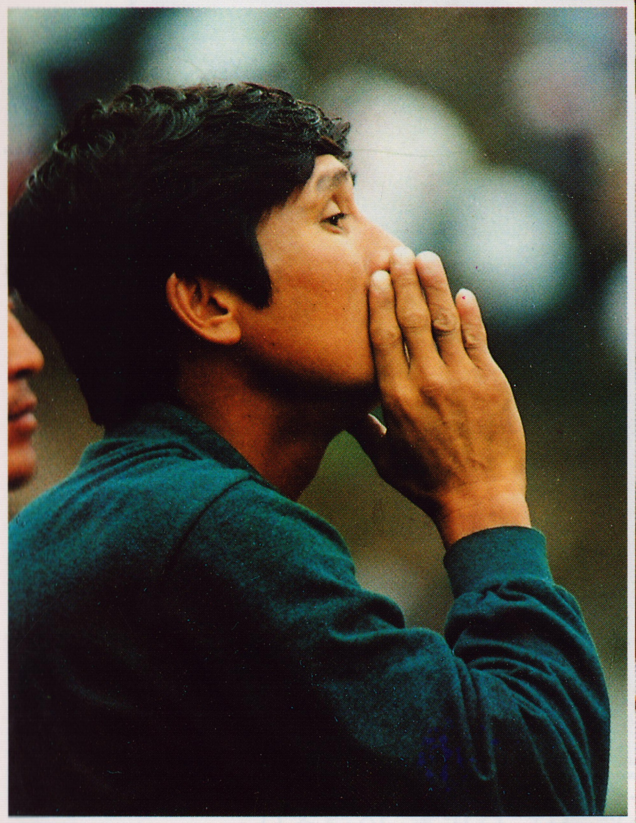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4. 25녀자배구선수단 훈련장에도 자주 나오시여 때리기와 막기를 잘하자면 조약을 높이 하여야 한다고, 막기는 중요한 득점수단이라고,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자면 순간때리기를 경기정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재치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배구기술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도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로 우리의 4.25체육단은 국제무대에서 《동방축구계의 혜성》, 《붉은 번개》, 《세계배구계의 강팀》으로 그 위용을 누리에 떨치게 되였다.





백열전을 이룬 축구경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체육인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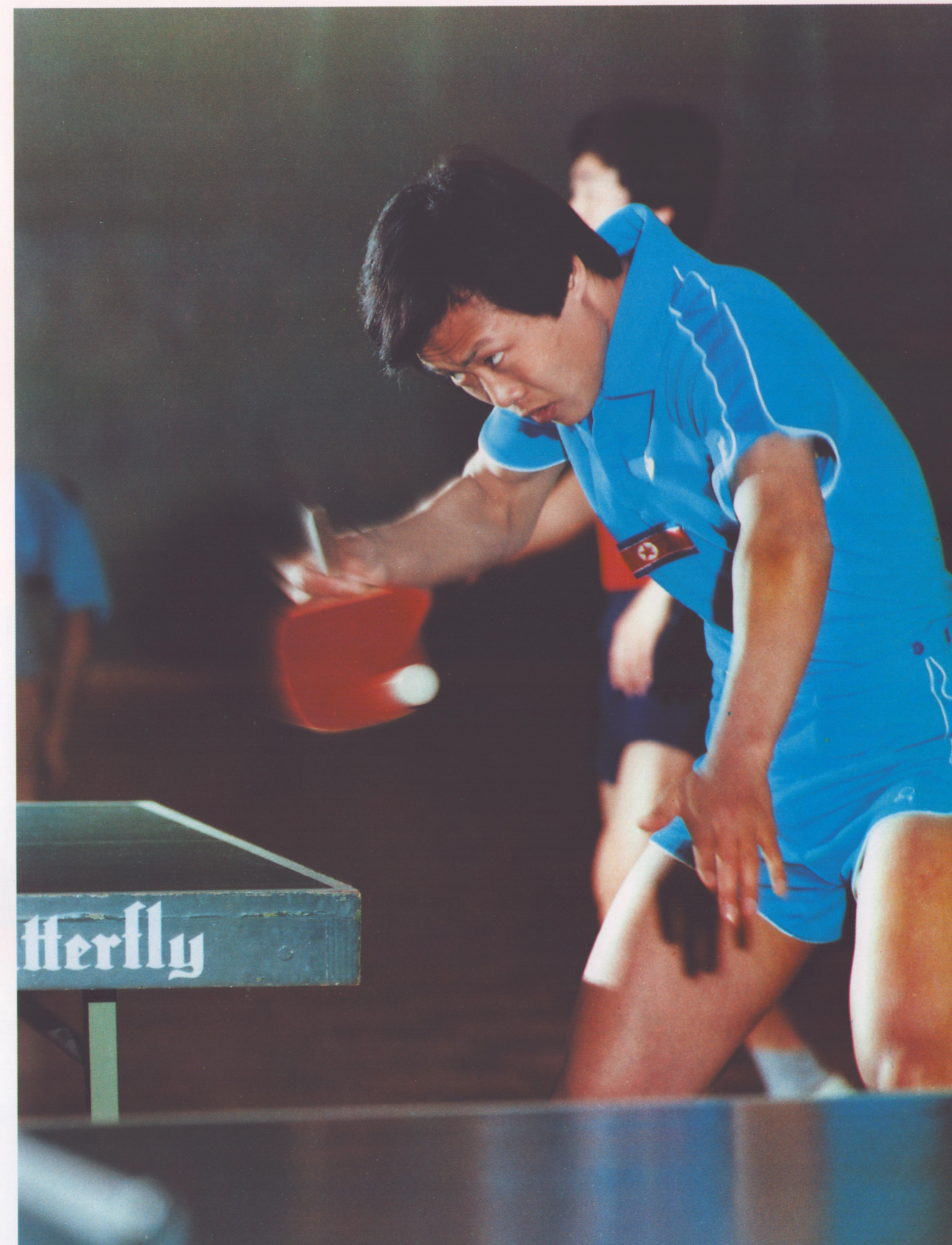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마라손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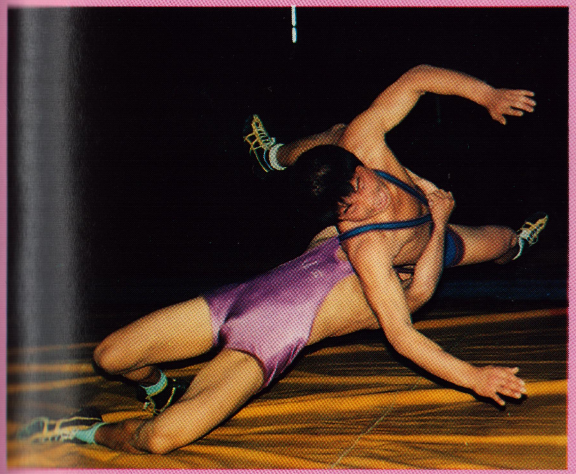
장신자들의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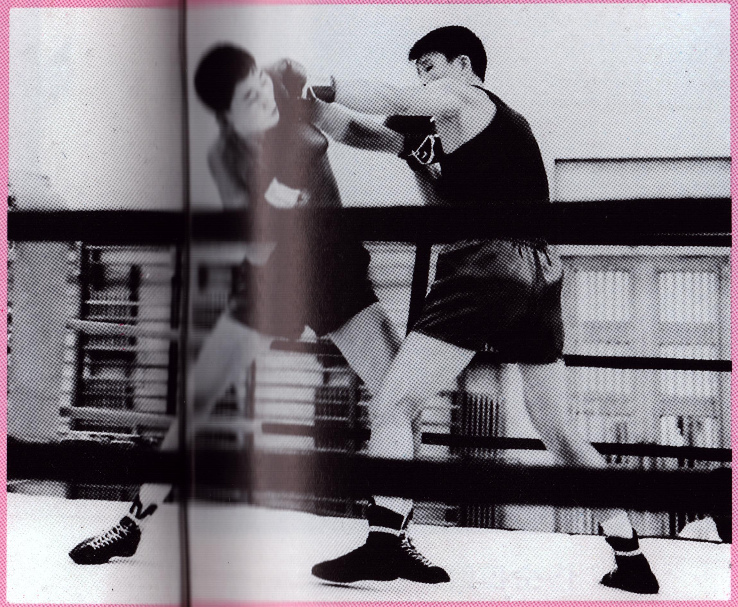


처녕기 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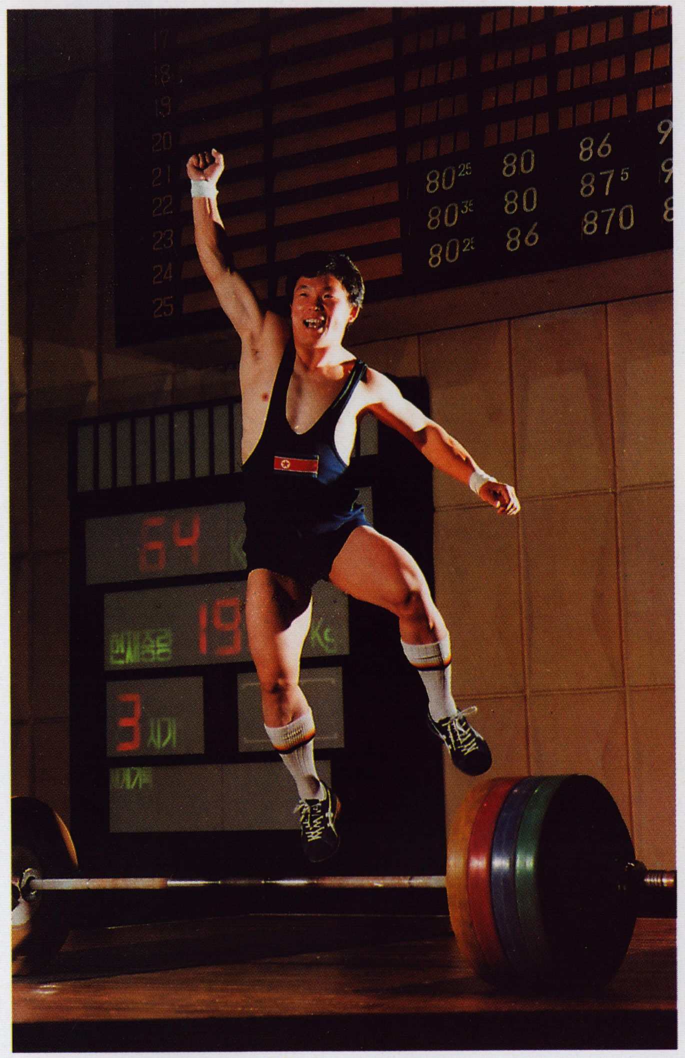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여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세계기록돌파순간



기계체조



교예체조



체육적기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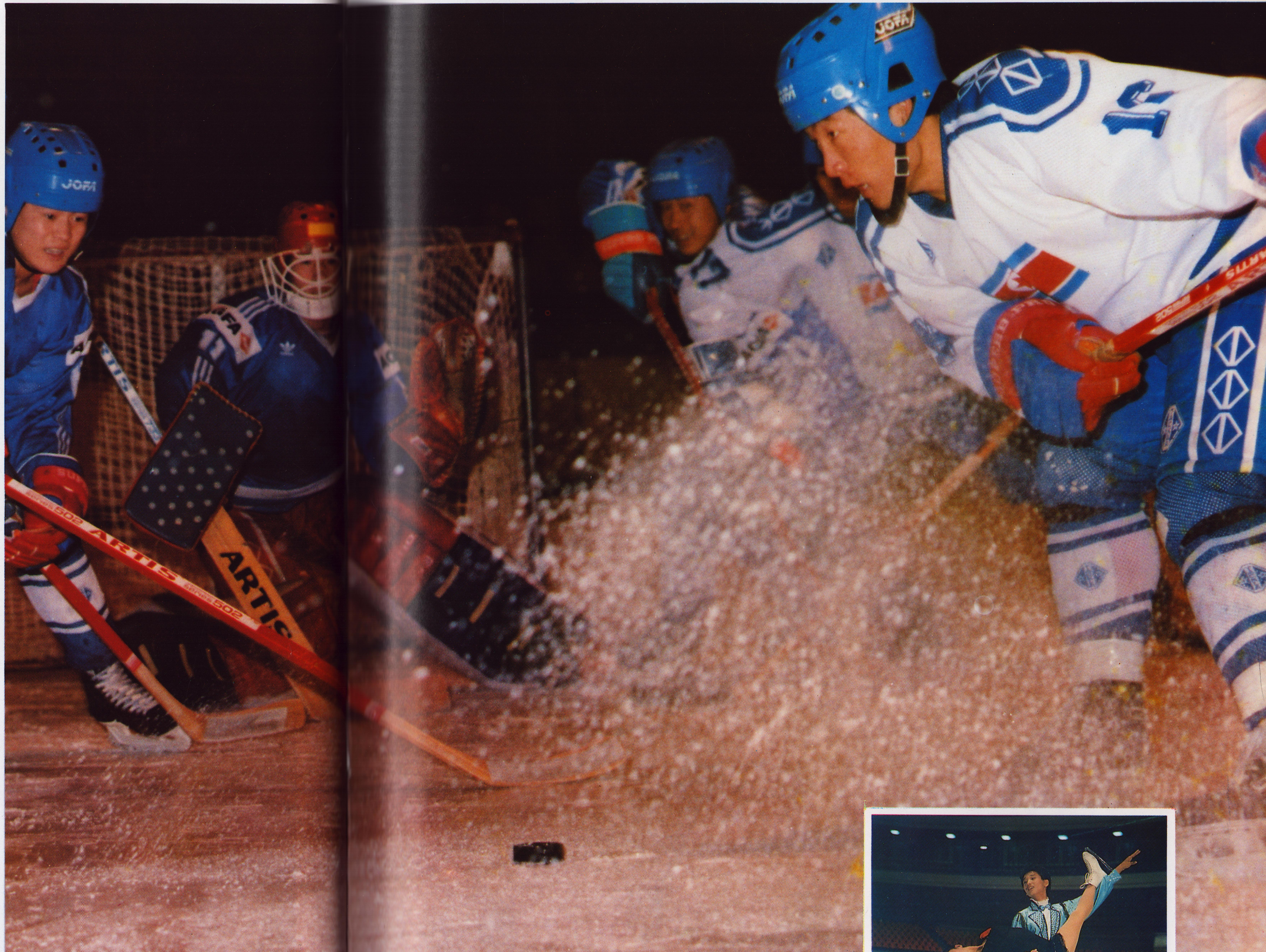
물에뛰여들기







호케이경기









성 공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 우리 나라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싸우는 나라인것만큼 사격술에서 단연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여야 합니다.
>
> 김 정 일

영웅조선의 체육인답게 싸우라 하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격과 권투는 싸우는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을 상징하는 종목이라고 하시면서 이 종목들을 발전시키는데 특별히 큰 힘을 넣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사격선수들과 권투선수들이 언제나 영웅조선의 아들딸이라는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를 온 세상에 더욱 높이 떨쳐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체육인들의 훈련장을 쉬임없이 찾으시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멸적의 투지와 용맹을 안겨주시였다.

일찍부터 백발백중의 명사격술을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명중사격의 비결을 기술실무적 요소에서가 아니라 사상에서 찾으시고 선수들의 정치사상적 준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71년 봄 제20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둔 선수들의 사격훈련장에 찾아오시여 우리 수령님께서는 선수들이 사격과 권투에서 1등을 하였을 때 제일 기뻐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들모두가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를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사용하시던 사연깊은 싸창도 선수들에게 안겨주시며 백두의 혁명정신도 심어주시였고 하루에 100발 쏘아 1,000점 따는 운동도 발기하시여 사격선수들속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게 하시였다.

당의 사랑은 제복에도





4. 25국방체육선수단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76년 4월 15일, 온 나라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고있던 뜻깊은 이날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수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격훈련기재들을 싣고 또다시 훈련장에 찾아오시였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옹근 한주일동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격선수들을 찾으시고 때로는 화력지휘관이 되시고 때로는 사격지도원이 되시여 매 선수들의 사격자세와 겨누기 등 명중사격의 여러 요인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면서 그들에게 백발백중의 명사격술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격선수들이 훈련을 잘할수 있도록 사격장을 꾸리는 사업을 당적인 사업, 국가적인 사업으로 포치하시고 사격경기에서 선수들이 높은 성적을 쟁취하도록 예술인들을 데리고오시여 크게 고무해주시였으며 우리 선수들의 훈련성과도 축하하시여 화선에서 표창수여식도 진행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속에서 뒤떨어졌던 권총사격과 날치기사격을 비롯한 모든 사격종목들은 오늘 세계적수준으로 비약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권투종목발전에도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권투에서의 성공의 비결은 점수따기가 아니라 튼튼한 육체적준비에 의한 강한 타격과 속도에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권투의 기본방향은 맞다드는 적수를 단매에 완전히 꺼꾸러뜨리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우리 나라 권투선수들에게 알맞는 기술과 전술을 가르쳐주시고 익혀주시며 선수들과 함께 훈련장에 계시였고 손수 구해오신 권투경기 필림을 돌리시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선수들의 기술전술적 특징들을 자세히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우리 권투선수들은 그 어떤 강적도 물리칠수 있는 필승의 전법을 체득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 체육인들을 세계적인 강자들로 키웠다.

우리 체육인들은 제20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와 제21차 국제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완벽한 사격술》, 《세계기술을 돌파한 값높은 금메달》, 《세계권투계의 표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민족의 영예와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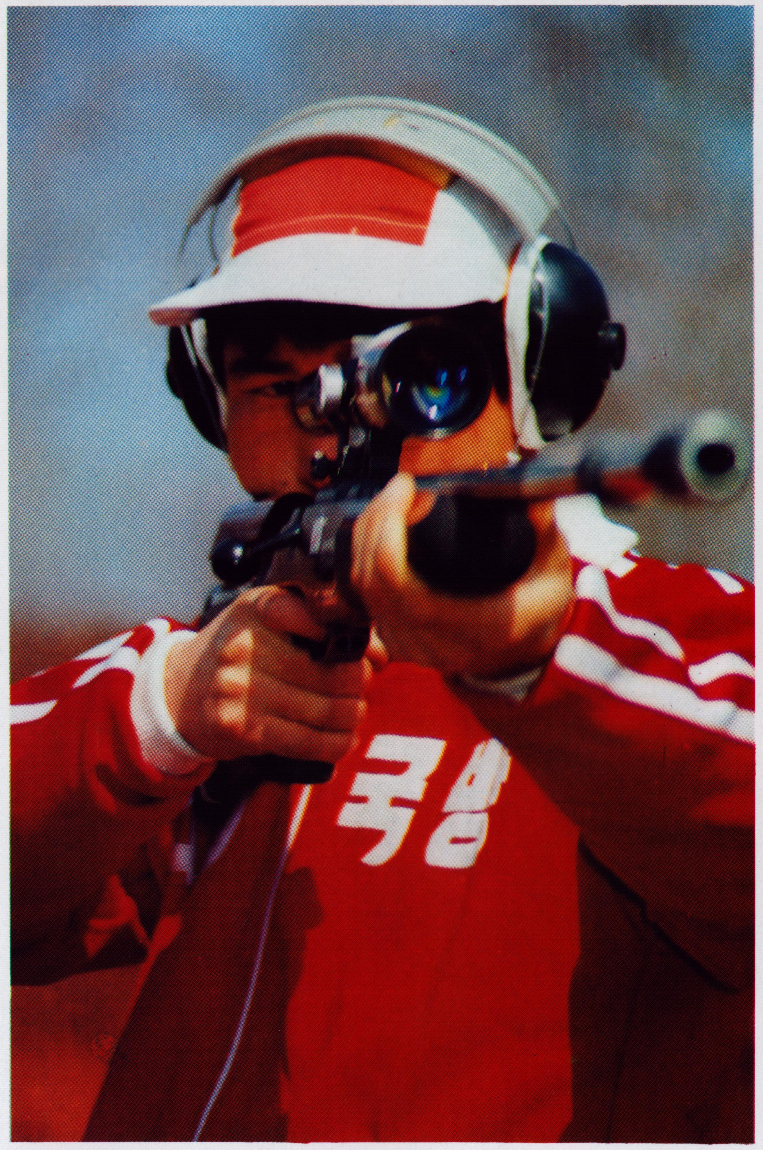








훈련에 열중하는 사격선수들



강 하







한치의 편차도 없이 착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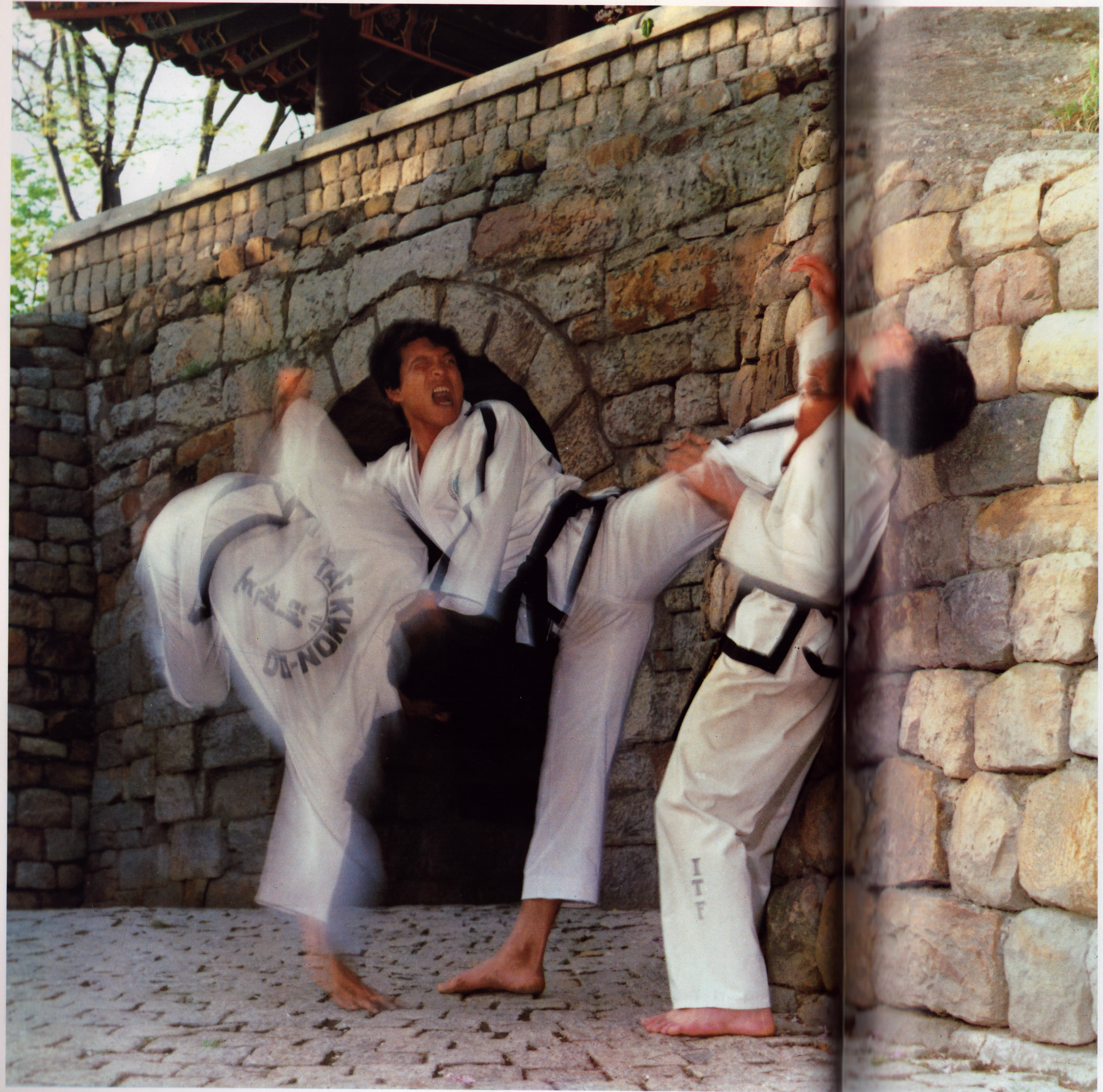
신심에 넘쳐 훈련장으로 나가는 체육인들



무선전파탐색선수들



신심에 넘쳐





맞 서 기



위 력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접견하여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사랑의 해빛은 이역땅에도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영예를 안고
행진해가는 재일동포체육인들



국경절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체육대회



탁구경기



일본선수단과의 친선경기의 한 장면


16
18











원정경기에 떠나는 선수들을 고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시여

위대한 령장, 위대한 스승, 위대한 어버이를 진두에 높이 모신 주체체육의 력사는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빛나는 년대기였다.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197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기간 주체체육은 위대한 변혁과 자랑찬 위훈, 긍지높은 승리로 자기의 력사를 이어왔다.

워싱톤과 도꾜, 문헨과 몬트리올, 로마와 칼커타…

지구의 동반구와 서반구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체육인들은 **김일성**조국의 존엄, **김일성**민족의 슬기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찬란한 승리의 상상봉에로만 치닫는 주체체육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 받드시여 몸소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오신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우리 체육인들을 무적필승의 강자로 억세게 키워주시였다.

찬바람부는 운동장에 나오시여 축구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시며 누구는 속도를 해결해야 하며 또 누구는 중장거리차넣기기술을 해결해야 한다고 다정히 일깨워주기도 하시고 비내리는 경기장에 나오시여서는 선수들의 특기를 다 발휘할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치안도 토의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무더운 여름날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시고 수영선수들의 훈련모습도 일일이 보아주시고 명절날, 쉬는 날 우리 체육인들속에 계시며 주체적인 기술전법을 가르쳐주시고 무비의 담력과 무적의 힘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불철주야로 사업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 조국의 영예가 빛나고 우리 민족의 존엄이 빛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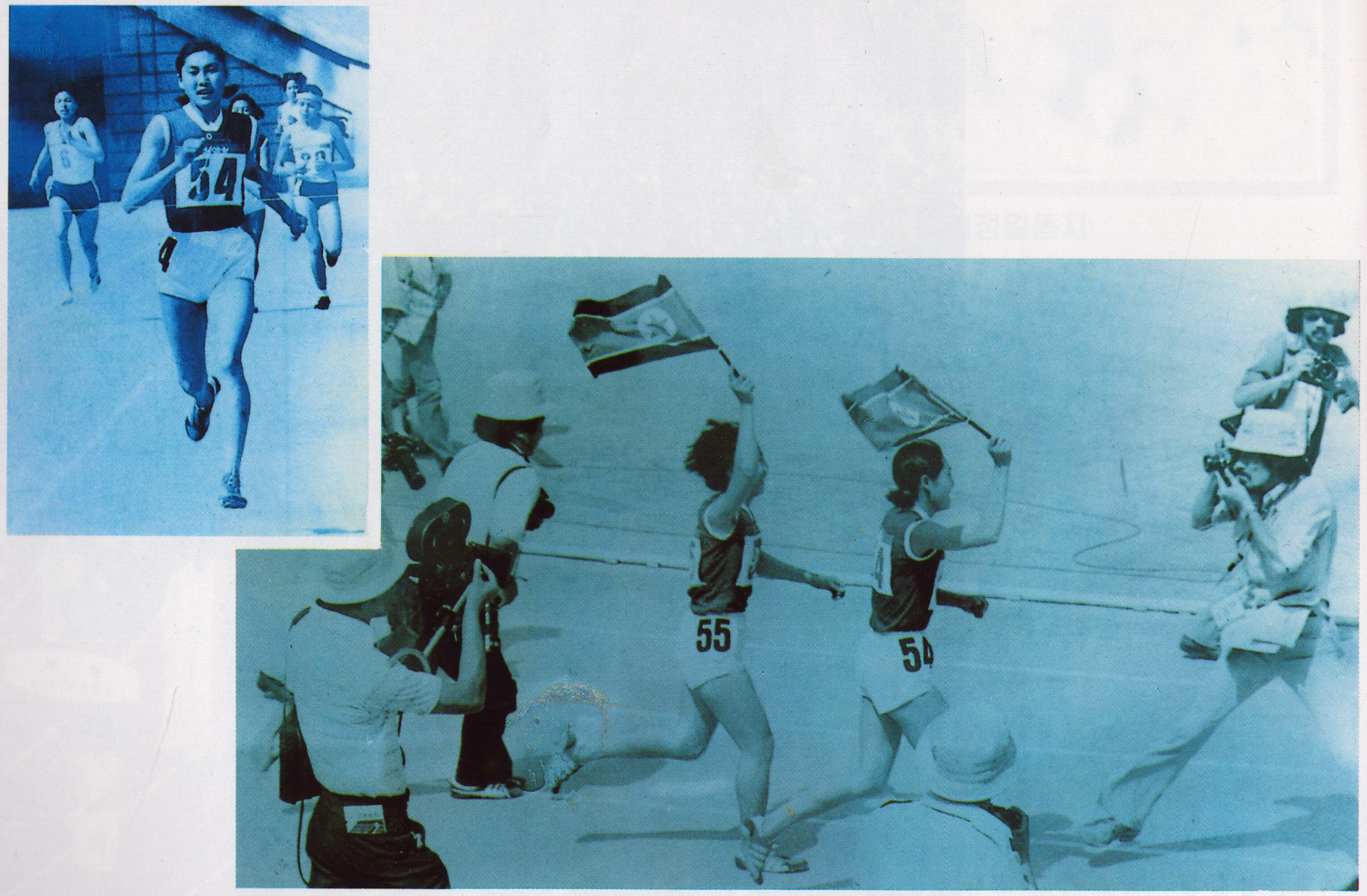
정녕 우리 체육의 빛나는 승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아오신것이다.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가는
주체조선의 체육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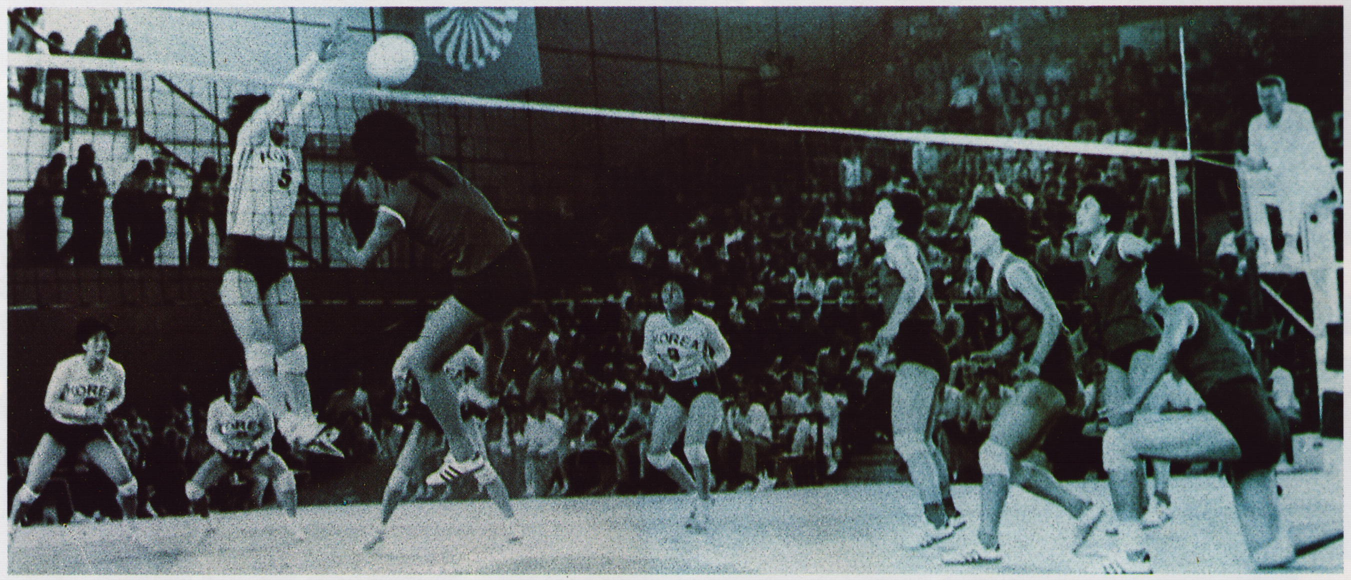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친 주체조선의 체육인들



세계의 초점을 집중시킨 마라손선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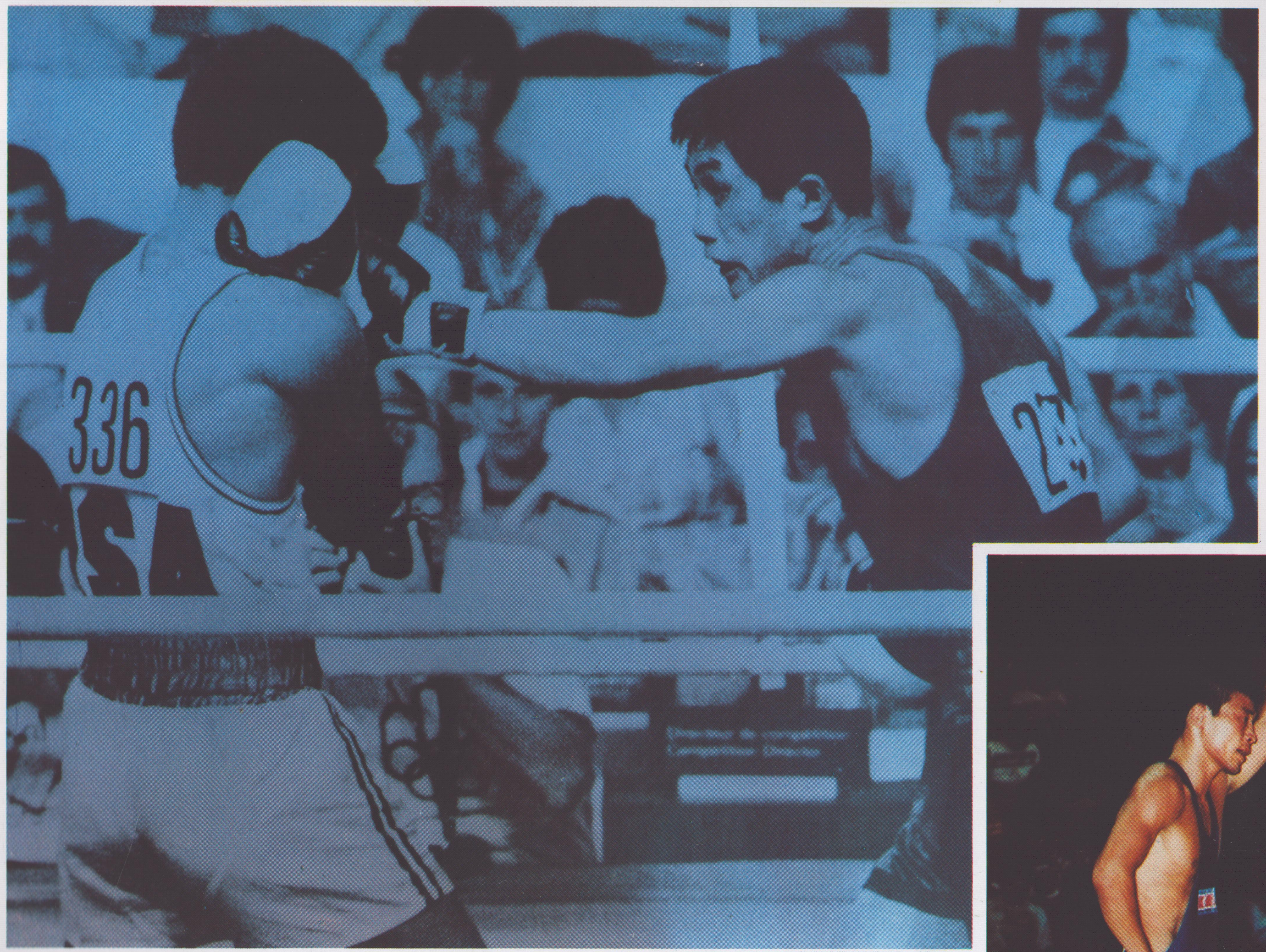


남조선선수들을 수세에 몰아넣는 녀자배구선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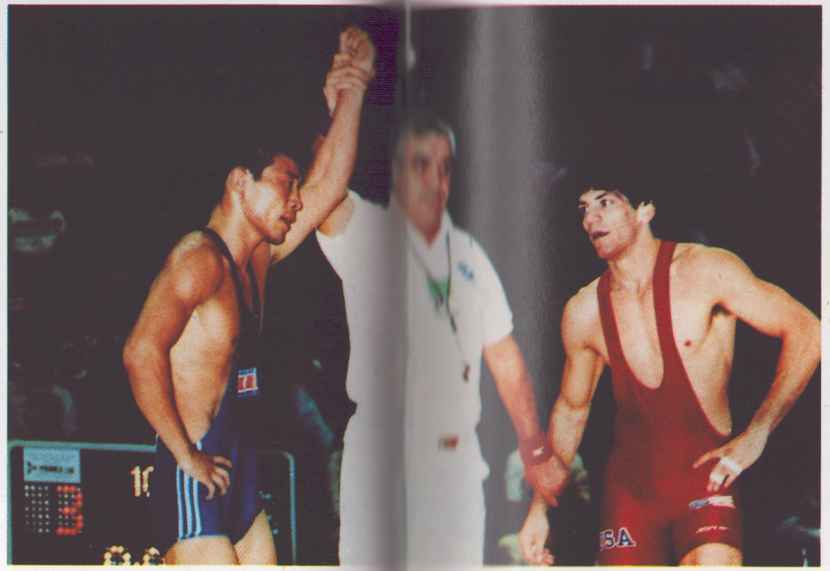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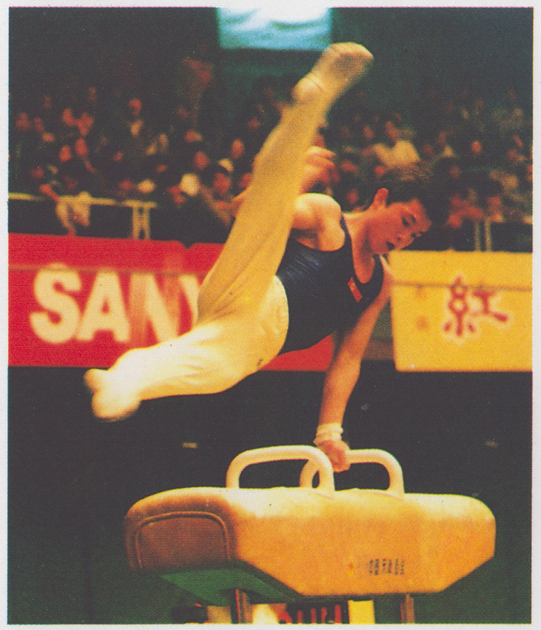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시상대에 오른 주체조선의 체육인들




336

영웅조선의 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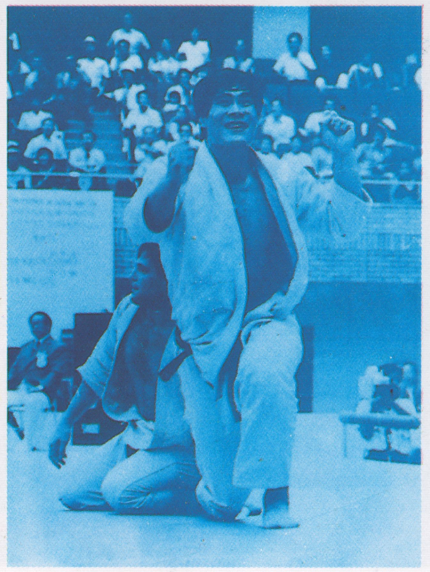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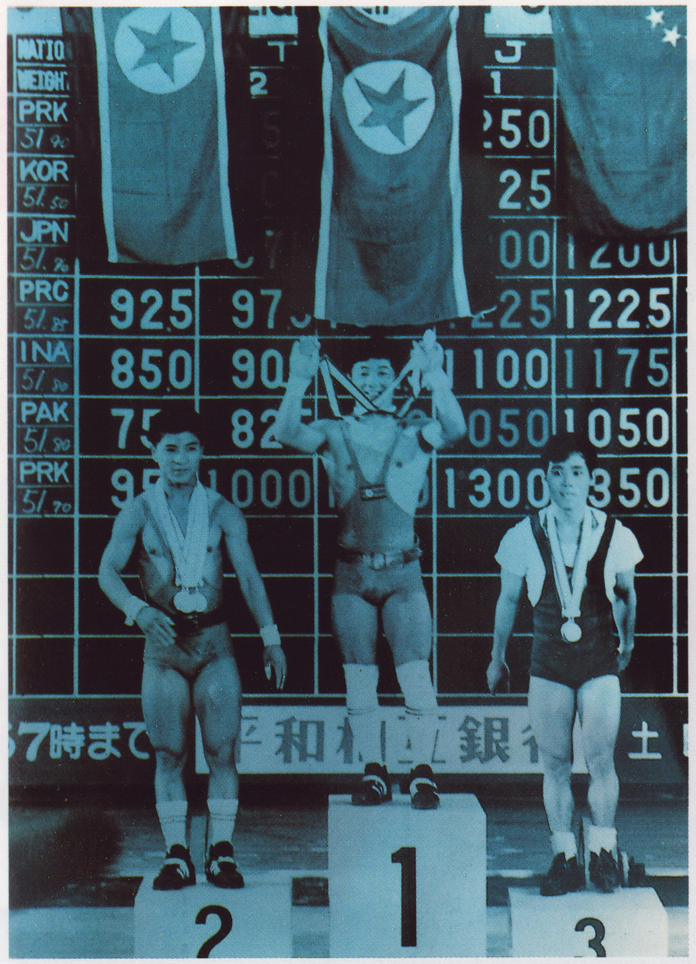

1. КИМ ХВАН
2. КОРНИЛАЕВ
3. ФАЛАНДИС
4. ХАСАНОВ
5. БАТСАЙХАН
6. БИРО
Prodex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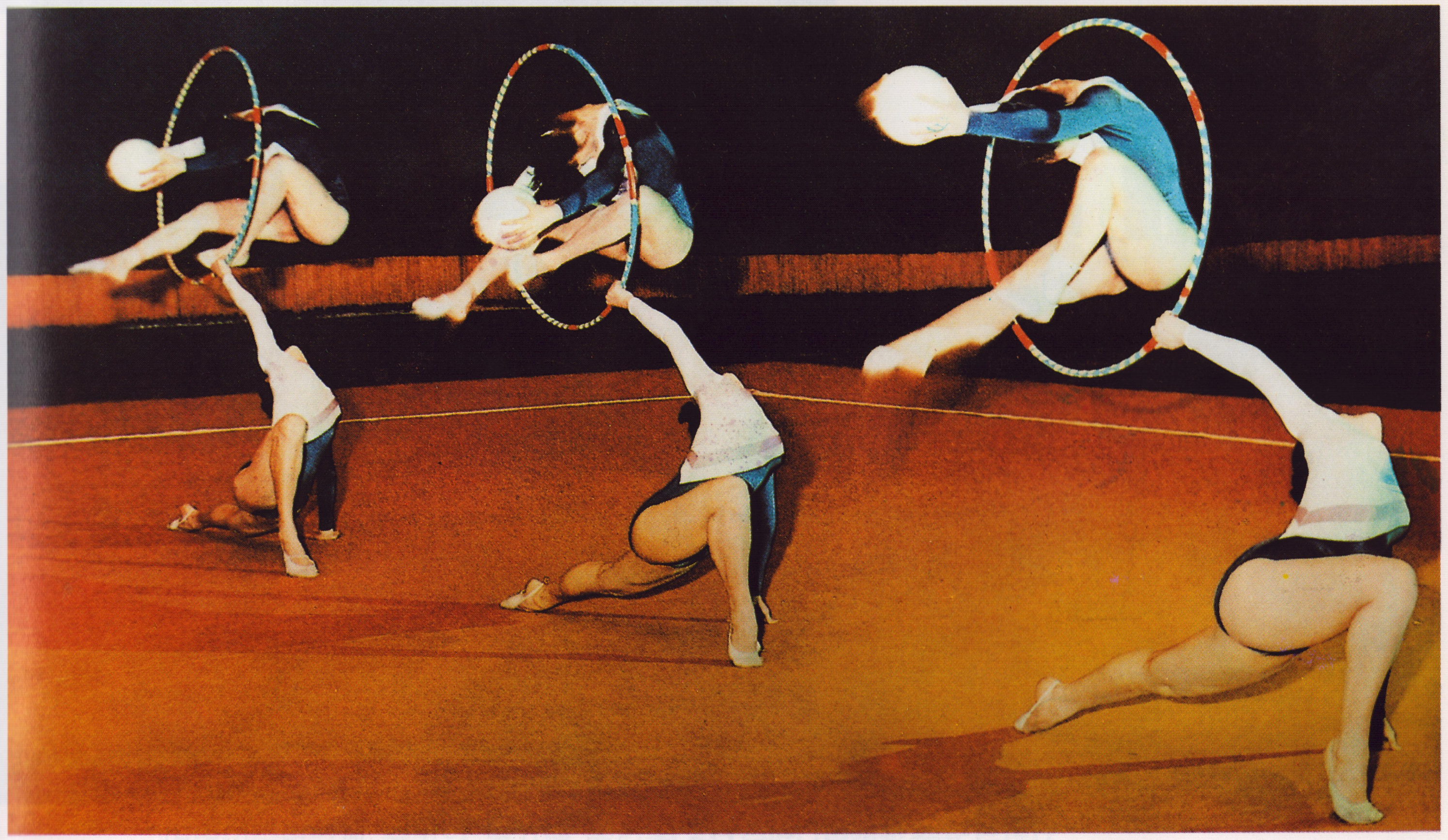


조국의 영예를 떨친 축구선수들





시상대에 올랐다.



조형예술적으로 완성된 예술체조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님의 전사들

(제1차 세계군대종합체육경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선수들


선수들을 환영하는 평양시민들


미국군대녀자배구선수단을 타승한
녀자배구선수들


경기대회소식으로 흥성이는 신문매대


공화국기를 휘날린 체육선수들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 장군님의 체육전사들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체육선수들의 일부



세계탁구녀왕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박영순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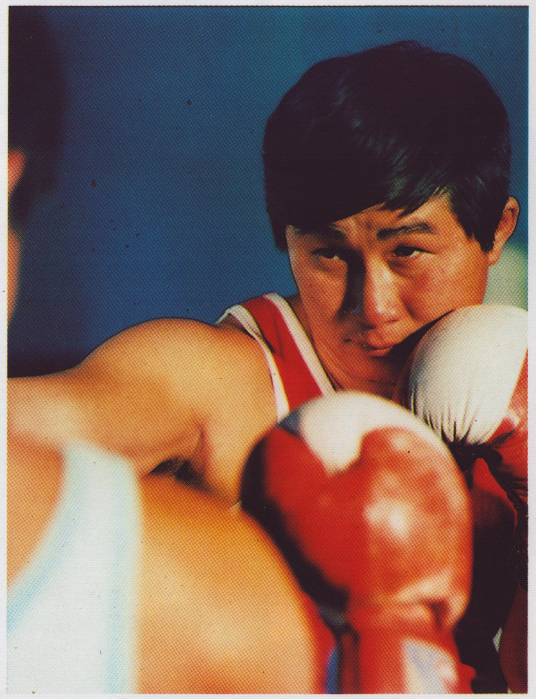
세계안마왕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배길수선수



세계2중레스링선수권보유자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김철환선수



세계기계체조명수
인민체육인 김광숙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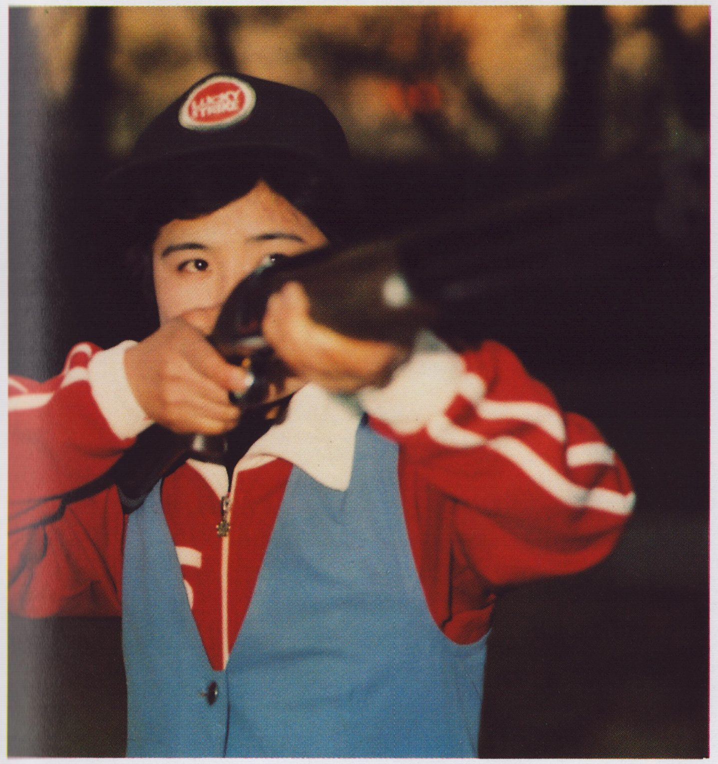
무쇠주먹의 강타수
인민체육인 구영조선수



세 계 힘 장 사
인민체육인 김명남선수



세계레스링선수권보유자
인민체육인 김영식선수



세계사격선수권보유자
인민체육인 박정란선수



제1차 세계군대종합체육경기대회
마라손우승자 인민체육인 문경애선수





집단체조의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집단체조왕국으로 만드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단체조창조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전통에 기초하여 그를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60년대 초에 당 제4차대회에 내놓을 대집단체조창작을 계기로 우리 나라 집단체조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대집단체조 《로동당시대》의 사상주제적 내용과 형식, 기본형상수단들과 음악에 이르기까지 정력적인 지도를 주심으로써 우리 나라의 귀중한 체육문화적재부로, 집단체조의 본보기작품으로 훌륭히 완성시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집단체조창작의 본보기를 전국에 일반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청진과 혜산, 강계와 신의주 등 여러 지방들에서 창조되는 집단체조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여 모든 집단체조가 사상주제적 내용이 깊고 배경대와 체조대의 형상이 아름다운것의 극치에 이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집단체조창조사업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1967년 집단체조 《혁명의 시대》에 력사상 처음으로 항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밝고 정중하게 모시도록 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앞에 또하나의 위대한 공적을 쌓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기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우리 나라 집단체조의 절실한 요구에 맞게 1970년대에 새로 창작되는 작품의 종자도 선정해주시고 《주체의 조선》,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지도하시면서 집단체조의 특성을 살리고 그 형식과 방법을 새롭게 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1980년대에는 **《집단체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을 발표하시여 주체적인 집단체조사상리론의 총서를 마련해주시였고 1990년대에는 새로운 집단체조형식인 실내집단체조를 훌륭히 창작완성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집단체조를 보다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몸소 키우신 재능있는 창작가들을 핵심으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집단체조창작단을 무어주시였고 집단체조전문가양성을 위하여 조선체육대학에 집단체조학과를 내오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로 《조선의 노래》, 《당의 기치따라》,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인민상계관작품으로 완성되였으며 중앙과 지방들에서 60여개의 집단체조들이 체육예술의 대걸작으로 창작완성되여 우리 나라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집단체조의 조국으로, 집단체조의 왕국으로 되였다.



창작토론을 하고있는 창작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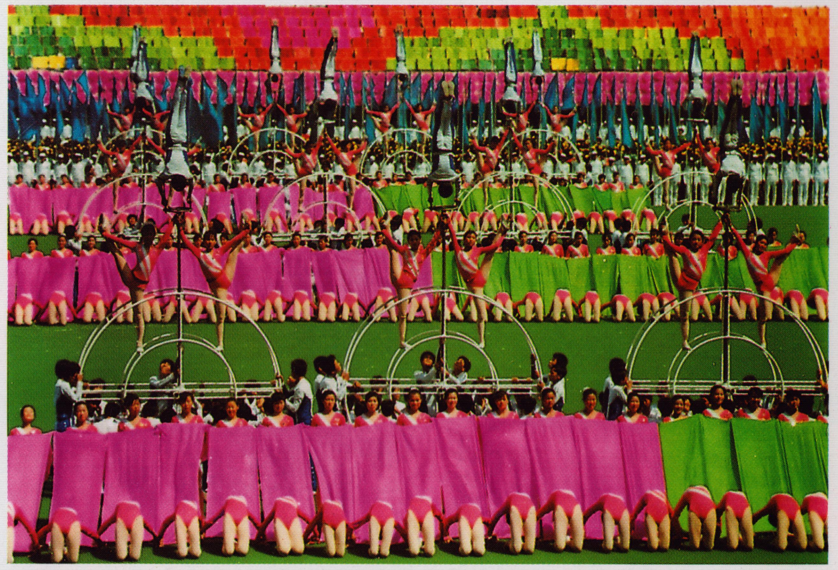




집단체조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집단체조에 수여된
인민상 상장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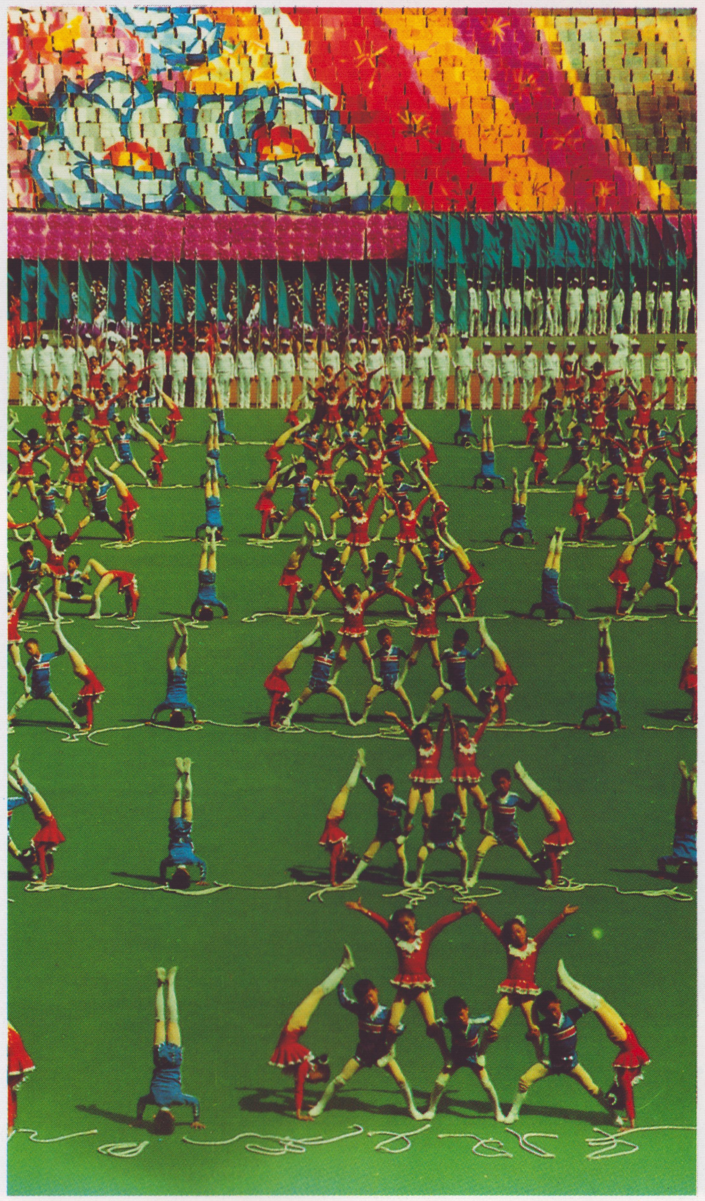
집단체조의 한 장면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갈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 장면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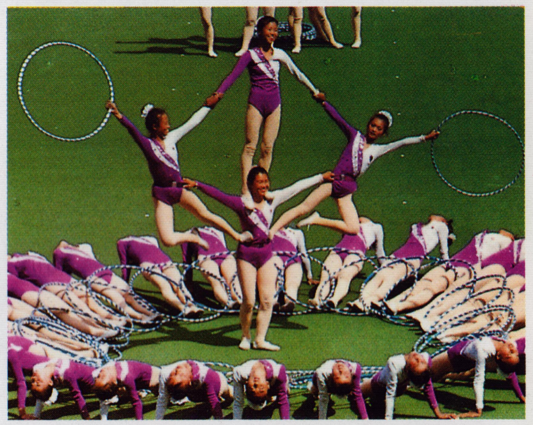
집단체조를 관람하는 해외동포들











집단체조장면의 일부









집단체조의 종장

우리 나라 집단체조전문가들의
방조로 진행된
세계 여러 나라 집단체조들





체육선수들의 성과를 축하하여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도록 이끄시여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한부분으로서의 우리 체육은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체육부문에서 우리 당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을 구현하여 국제체육무대에서 남조선괴뢰도당의 분렬주의적인 《두개조선》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접촉과 대화를 마련하여 북남유일팀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유일팀구성을 위한 접촉과 대화에서 나서는 원칙과 전술, 활동방향을 일일이 밝혀주시고 체육회담에서 어디까지나 주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걸음걸음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70년대에 들어와 대화의 문이 열리고 북과 남 체육대표들의 회담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국제경기들에 민족유일팀을 구성하여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날로 강화되는 우리 인민의 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90년대에 북남통일축구경기를 진행하도록 하시고 평양과 서울에서 진행되는 통일축구경기를 순수 체육축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통일축제로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경평전이 재개된 때로부터 40여년이 지난 1990년 10월 평양과 서울에서는 7천만겨레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남통일축구경기가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북남통일축구경기를 분화구로 하여 1991년에는 우리 조국 분단이래 처음으로 《코레아》유일팀이 탄생하였으며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차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북남이 《코레아》유일팀으로 출전하여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북남유일팀실현, 그것은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환영선전화



선수들을 환영하는 평양시민들



환영속에 입장하는 선수들



경기에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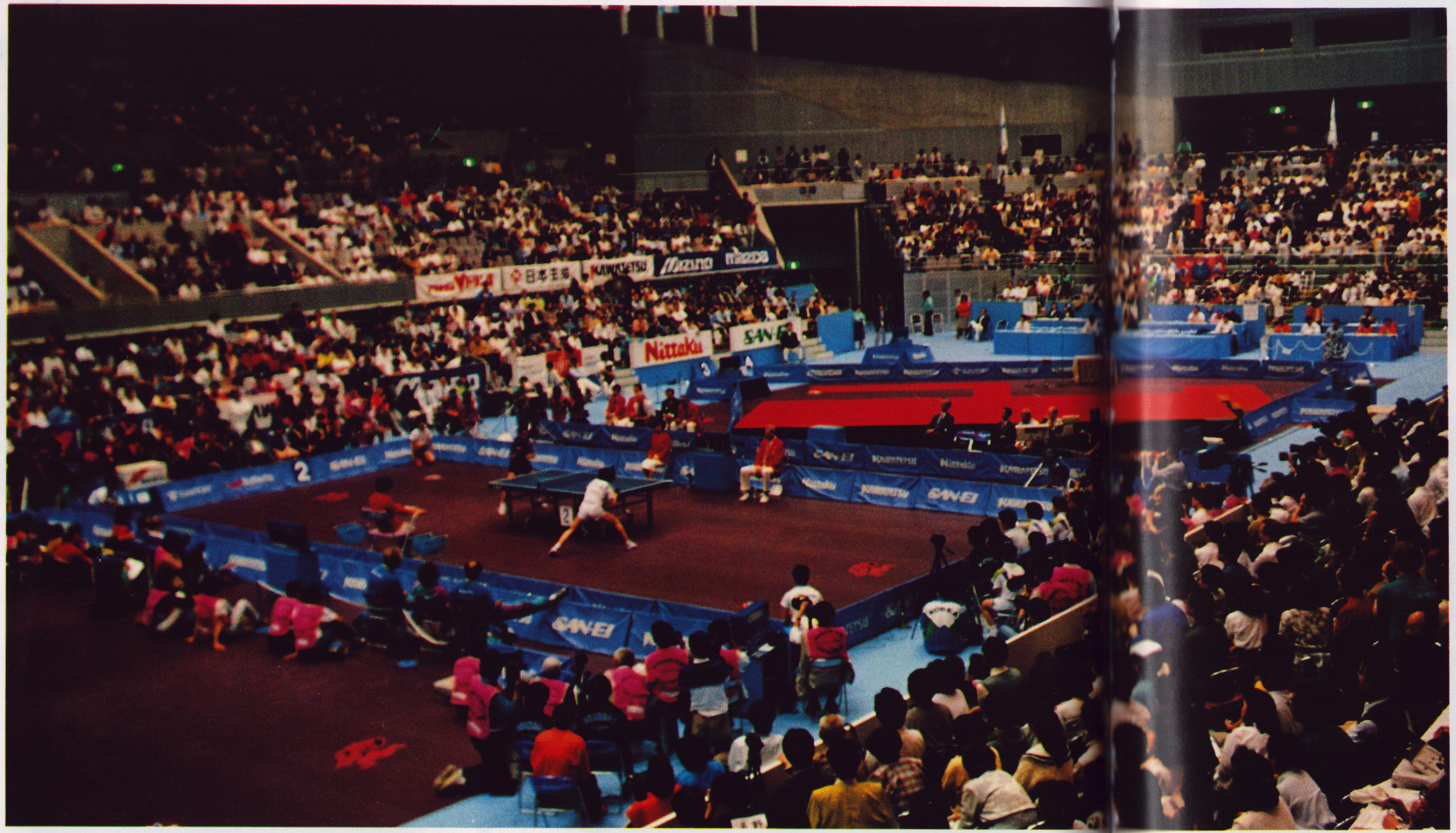
응원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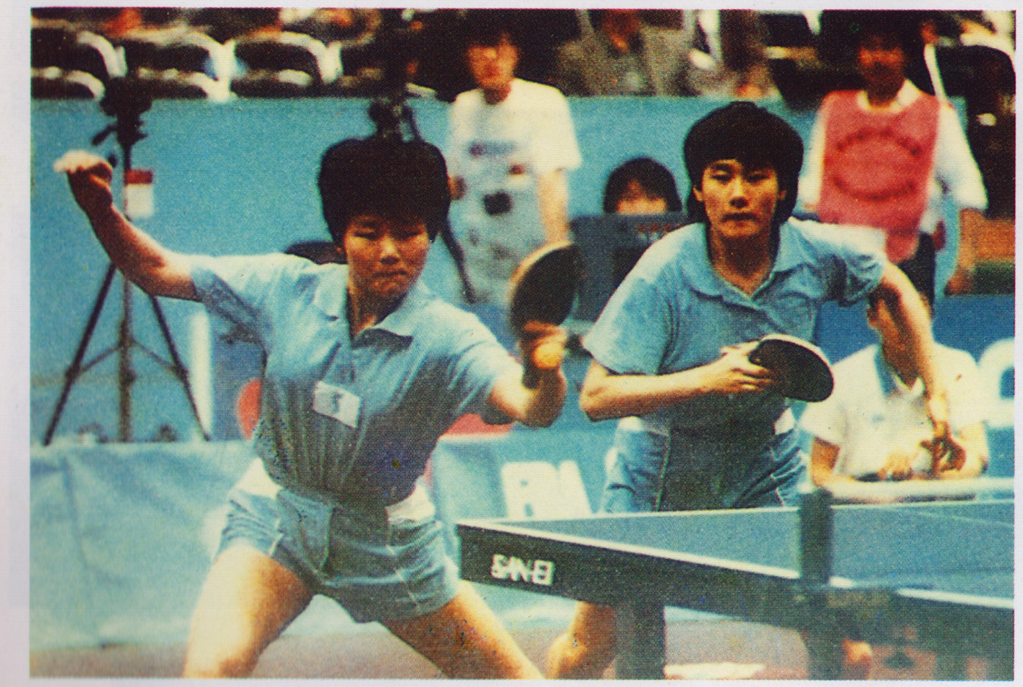
《코레아》축구유일팀 선수선발경기의 한 장면



경기를 마치고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장



몸과 마음 하나로 합치는 복식경기



승리로 결속한 기쁨



유일팀선수들을 환영하는 재일동포들



시상대에 오른 《코레아》유일팀선수들



갈라져 살수 없다

체육과학발전과 선수후비육성에 큰 힘을 넣으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현대체육발전추세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1970년대 전반기에 주체적인 체육과학의 본질과 사명, 체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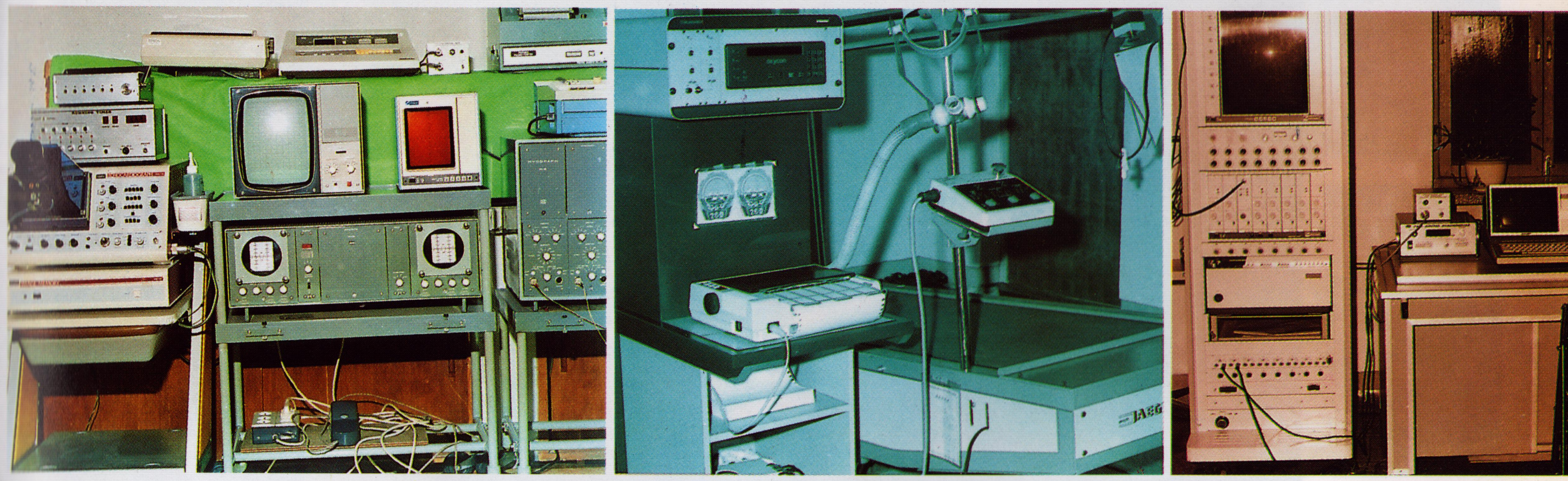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과학연구사업이 노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매시기, 매단계마다 주체적인 체육과학연구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주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연구방법을 옳게 선정하고 교수훈련방법과 체육생리생화학연구, 체육기자재연구 등 과학연구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적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시여 나라의 체육과학이 우리 식대로 전면적으로 심화발전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든 종목에 대한 연구를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체육과학연구소의 력량을 더욱 보강해주시고 발전하는 시대적추세에 맞게 체육위생연구소와 체육과학도서관을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필요한 온갖 물질적조건들을 원만하게 풀어주심으로써 과학연구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최근에는 또다시 체육과학원을 내오시여 나라의 체육기술이 튼튼한 과학적토대우에서 발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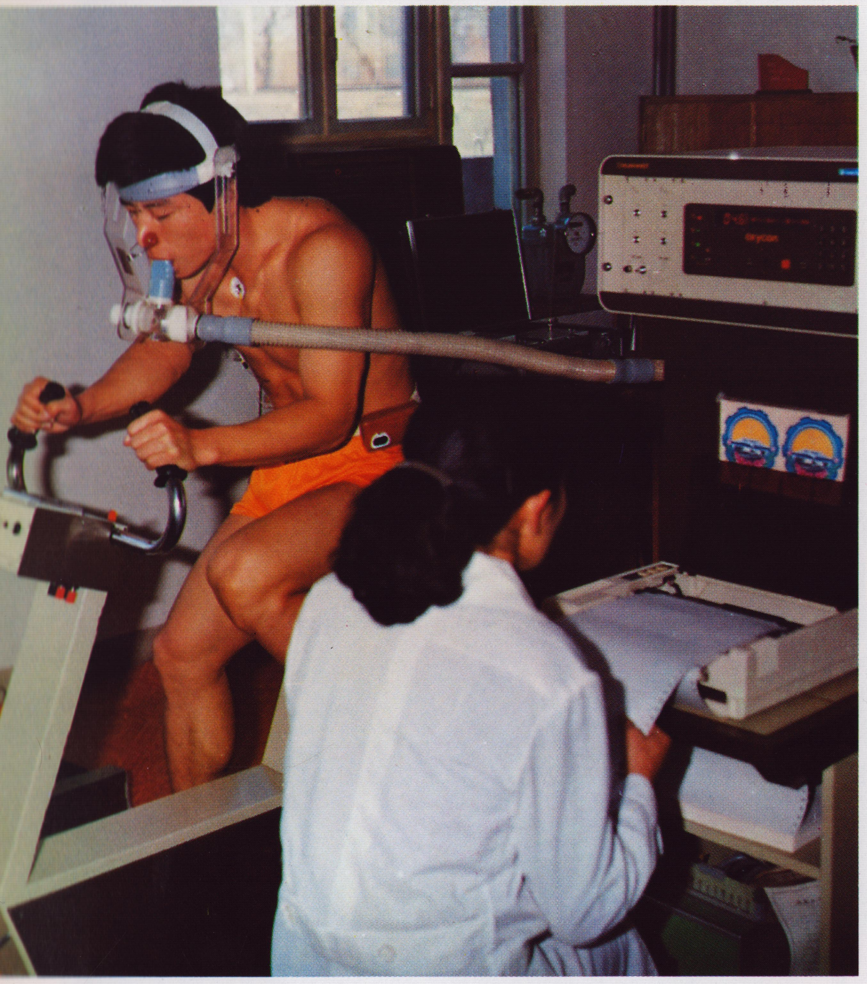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수후비육성사업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몸소 체육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선수선발 원칙과 기준을 밝혀주시고 그와 관련한 혁명적조치들도 세워주시여 선수후비선발체계가 전면적으로 완성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체육구락부생후비를 키워내는 모체기지학교를 정하고 그곳에서 체계적으로 좋은 선수후비를 선발하여 체육구락부를 강화하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모든 고등체육전문학교, 부속체육학교, 체육구락부들에서 훈련을 강화하여 체육선수후비들을 체계적으로, 목적지향성있게 키우도록 현명하게 령도해주시였다. 최근에는 이미있던 체육구락부들을 과외체육학교로, 각 도들에 있던 고등체육전문학교들을 체육대학으로 승격시켜주심으로써 과학적이며 완성된 선수후비육성체계를 세워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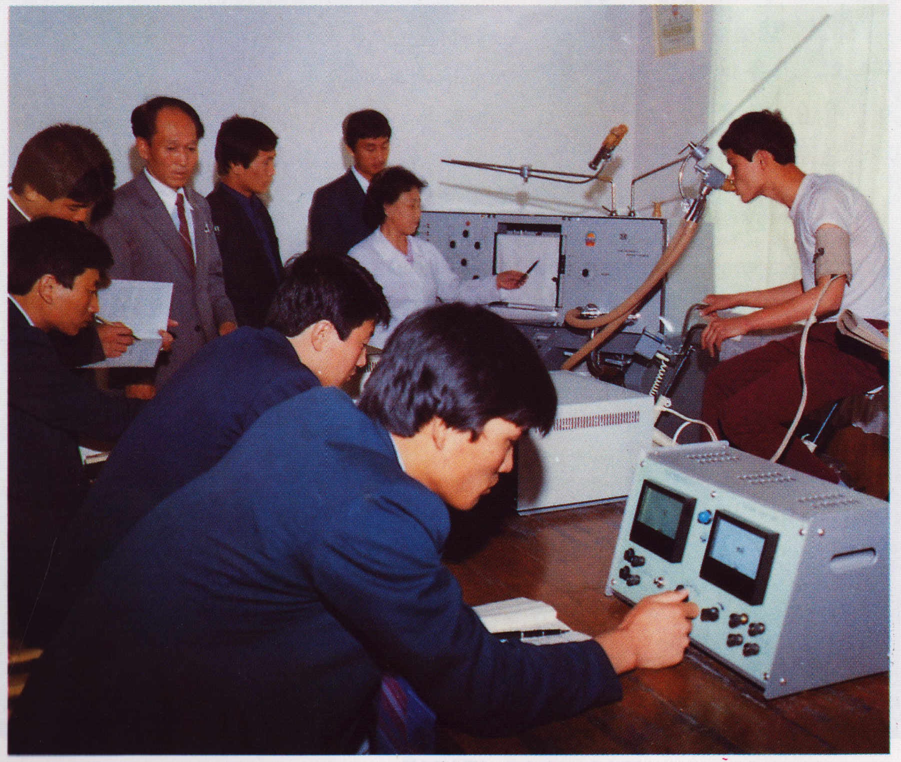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설비들의 일부







체육과학원 연구사들



조선체육대학 학생들의 실습시간



과외체육학교들에서 유능한 선수후비들이 자라난다.





인민학교 축구학급학생들의 경기중에서



나라의 억만재부도 아낌없이 돌려주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체육시설을 건설하는데서 《수지타산》의 기준을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두시고 더 좋고 더 많은 체육시설을 갖추어주시기 위하여 나라의 억만재부도 아낌없이 돌려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체육사업은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다가 돈이 남으면 하고 모자라면 그만두어도 되는 그런 사업인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전략적인 투쟁과업의 하나로 내세운 성스러운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체육시설을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경기장과 5월1일경기장, 창광원수영관과 빙상관 등 온 나라에 그물처럼 뒤덮인 체육시설물마다에는 인민을 위하시고 체육인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보통강반에 특색있게 일떠선 창광원 수영관을 건설할 때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친히 터전을 잡아주시고 그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인민적인 립장에서 완성하도록 하시였다.

연건평 3만 8천평방메터의 목욕탕과 물놀이장, 수영관에 흘러넘치는 맑은 물에도 우리 인민과 체육인들이 리용할 창광원에는 단 1프로의 묵은 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막대한 자금을 들여 대동강물을 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 있고 건물의 형식과 《창광원》이라는 그 이름에도 우리 인민과 체육인들을 아껴주시는 장군님의 은정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버이 사랑과 은정 속에 창광원 수영관은 착공한지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서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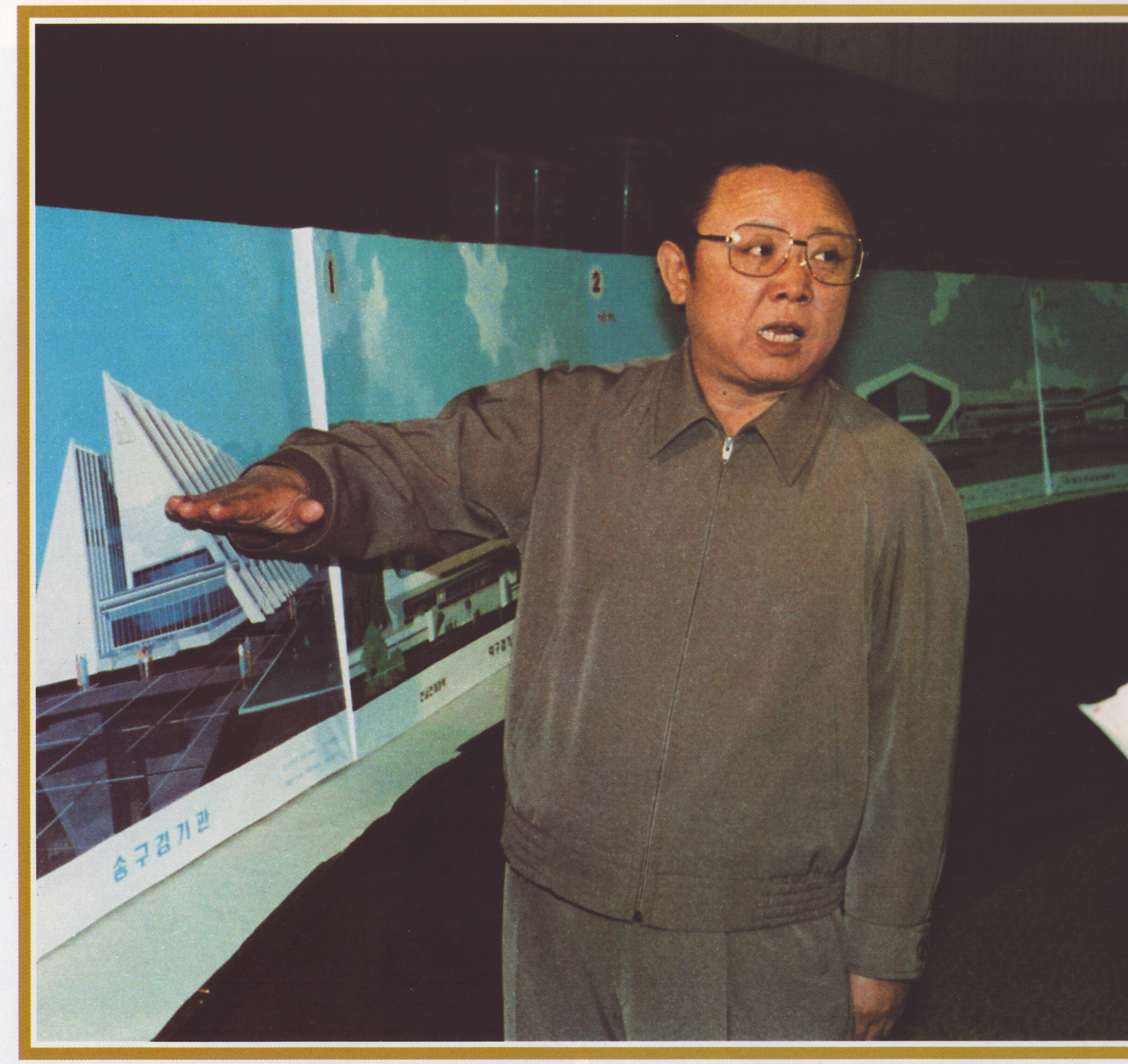
어찌 창광원 수영관뿐이랴.

창광원과 어깨나란히 원추형으로 특색있게 건설된 빙상관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이 벽체마다 기둥마다 그리고 빙상관안에 흐르는 맑은 공기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그 나날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빙상관 건설의 시공주가 되시여 깊은 밤, 이른 새벽 수시로 건설현장을 찾으시였고 우리 일군들에게 자본가놈들에게는 공사비, 운영비가 문제이겠지만 인민을 위한 우리의 건설사업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경기장안에 오염된 공기가 있을세라 100프로 뽑고 100프로 새로운 공기를 갈아넣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뿐만아니라 벽체에 바른 외장재에서 나는 미세한 냄새도 가려보시고 경제적타산만을 앞세우는 일군들을 타일러주시며 인민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야 인민적인 건물을 지을수 있다고 그처럼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억만재부도 아낌없이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은 빙상관만이 아닌 **김일성**경기장에도 5월1일경기장에도 청춘거리의 체육경기관들과 평양체육관의 체육문화오락시설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그리하여 해방전에는 단 하나의 톡톡한 경기시설도 없었고 단 하나의 체육기자재생산기지도 꾸려지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세계적인 기념비적 체육시설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으며 나라의 그 어디에나 천만금을 들여 꾸려진 체육기자재생산기지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청춘거리 체육경기관 형성도안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체육시설을 많이 건설하고 체육기자재생산보장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김 정 일



김일성경기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혁명의 수도 평양에는 청춘거리체육시설들과 5월1일경기장이 그 위용을 떨치며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거연히 일떠섰다.

풍치수려한 릉라도에 그 웅자를 자랑하며 거연히 일떠선 5월1일경기장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담력으로 건설된 세계굴지의 최대경기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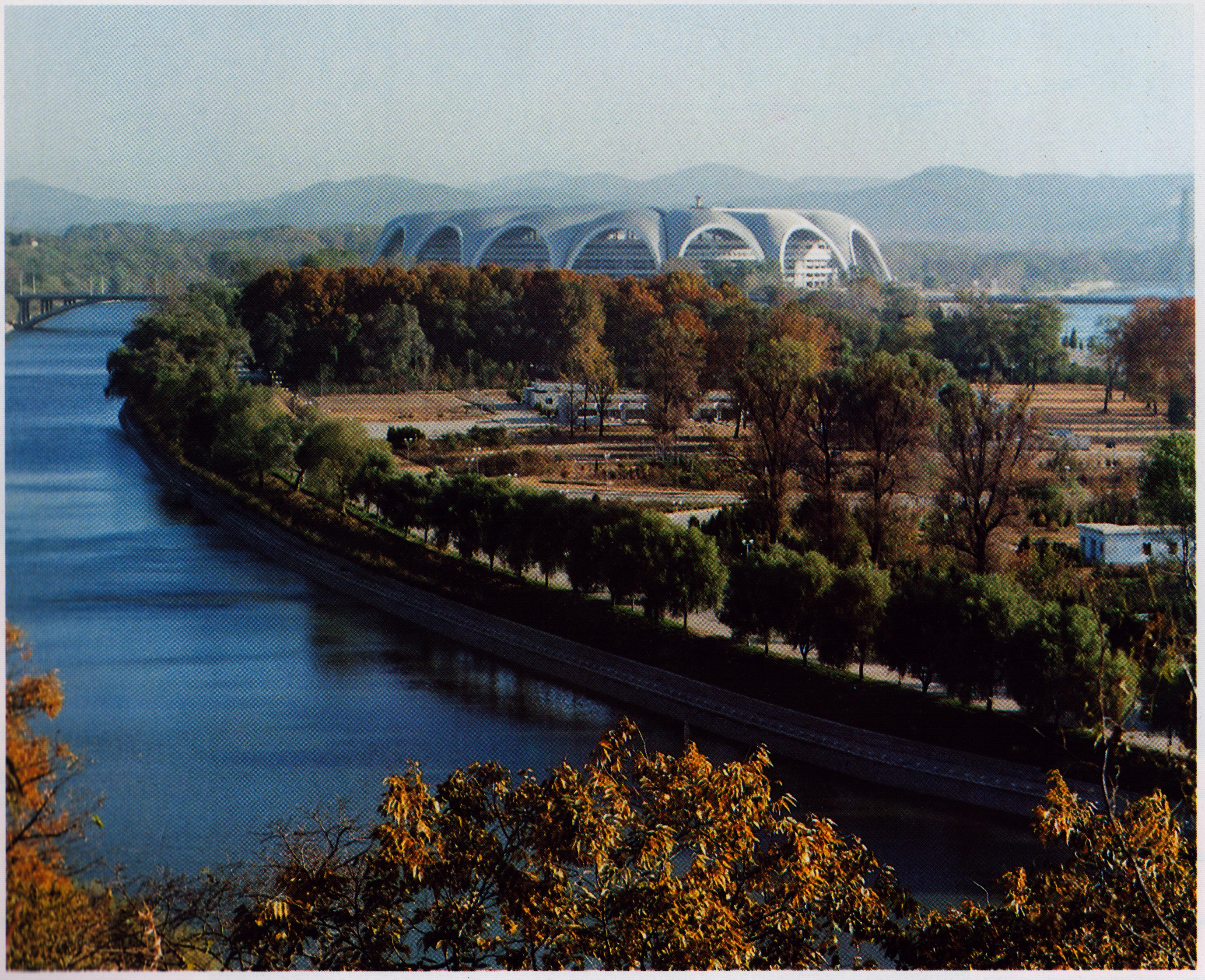
屈指可数

40만평방메터의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독특하고 웅장하면서도 모든 세부가 현대적미감이 나게 일떠선 5월1일경기장은 연건평이 무려 20만 7천여평방메터에 달하며 그 수용능력은 15만석에 이른다. 기본건축물은 8층으로 되여있으며 기본건물안에는 륙상, 력기, 유술, 권투, 씨름, 기계체조, 탁구 등 35개 종목의 훈련실과 선수휴계실, 피로회복실과 같은 크고작은 방만해도 1,300여개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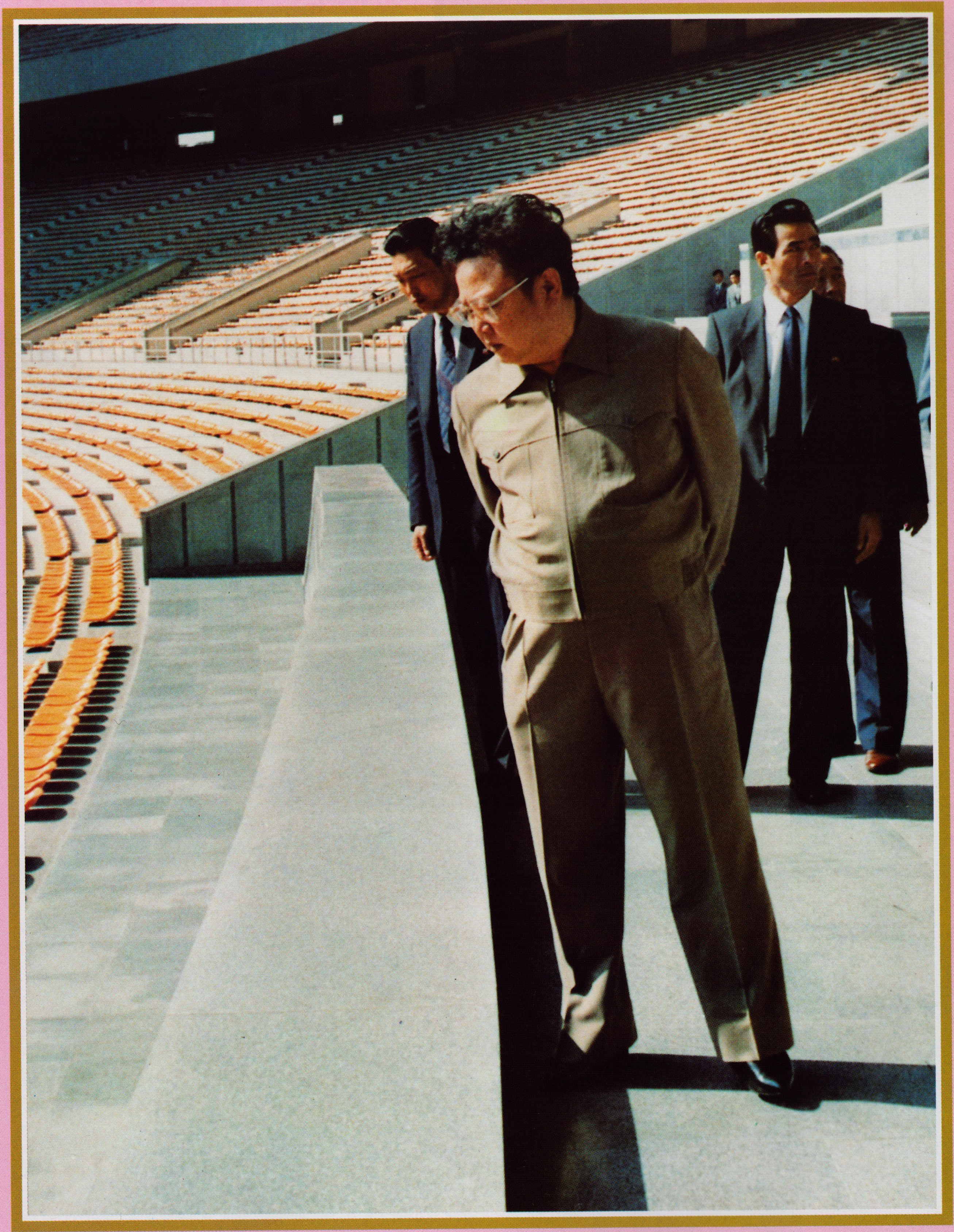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덩지가 큰 이 경기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의 전과정을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기장건설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일일이 료해하시고 건설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시였으며 수많은 체육 설비와 기재들을 보내주시여 불과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이며 대규모적인 걸작중의 걸작으로 완성시켜주시였다.

하기에 5월1일경기장과 청춘거리 체육경기관들을 찾은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주체조선은 하느님도 할수 없는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우고 천지개벽을 이룩한 위대한 나라》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치고있다.



5월1일경기장



5월1일경기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식



방송실의 일부



침 실



고무륙상주로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청춘거리체육시설의 건축령역은 175만평방메터나 되고 연건축면적은 26만 7천여평방메터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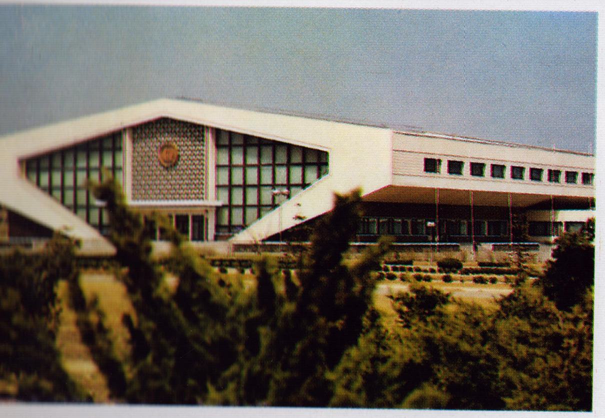
여기에는 2만 5천석의 관람석을 가진 서산축구경기장을 비롯하여 특색있고 웅장하고 우아하게 건설된 배구경기관, 롱구경기관, 탁구경기관, 송구경기관, 바드민톤경기관, 중경기관, 력기경기관, 경경기관, 수영경기관 등 실내 경기관들이 훌륭히 꾸려져있어 20개종목에 40여가지 경기를 동시에 진행할수 있다. 청춘거리에는 또한 체육인병원, 체육인식당을 비롯한 봉사기지들도 갖추어져있어 우리 체육인들은 사소한 불편을 모르고 훈련과 경기를 진행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85년 10월 유서깊은 만경대지구에 체육촌을 형성하고 여러가지 현대적인 체육시설들을 동시에 건설할데 대한 대담한 발기를 하시고 경기관형성도안전시장에 나오시여 경기관들의 설계와 시공, 채색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만경대안골체육촌에 건설하는 건물의 형식을 도식화하지 말고 류선형으로 경쾌한 감이 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청춘거리 경기관들을 시대의 기념비로 일떠세우도록 하나하나 이끌어주시였다.

불과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웅근 한개도시와 맞먹는 현대적인 체육촌이 일떠섰을 때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매 경기관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체육촌의 이름을 친히 《청춘거리》라고 지어주시였다.



청춘거리에 일떠선 체육시설들



중경기관



송구경기관



바드민톤경기관



수영경기관



오늘 청춘거리 경기관들과 5월1일경기장에서는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와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한 크고작은 국제국내경기들이 수많이 진행되여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을 크게 추동하고있으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국제체육 및 문화 축전과 같은 국제련대성행사들, 다양한 기념행사들도 조직진행되여 우리 인민들과 세계의 벗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고있다.



배구경기관



경경기관



력기경기관



탁구경기관



롱구경기관

태권도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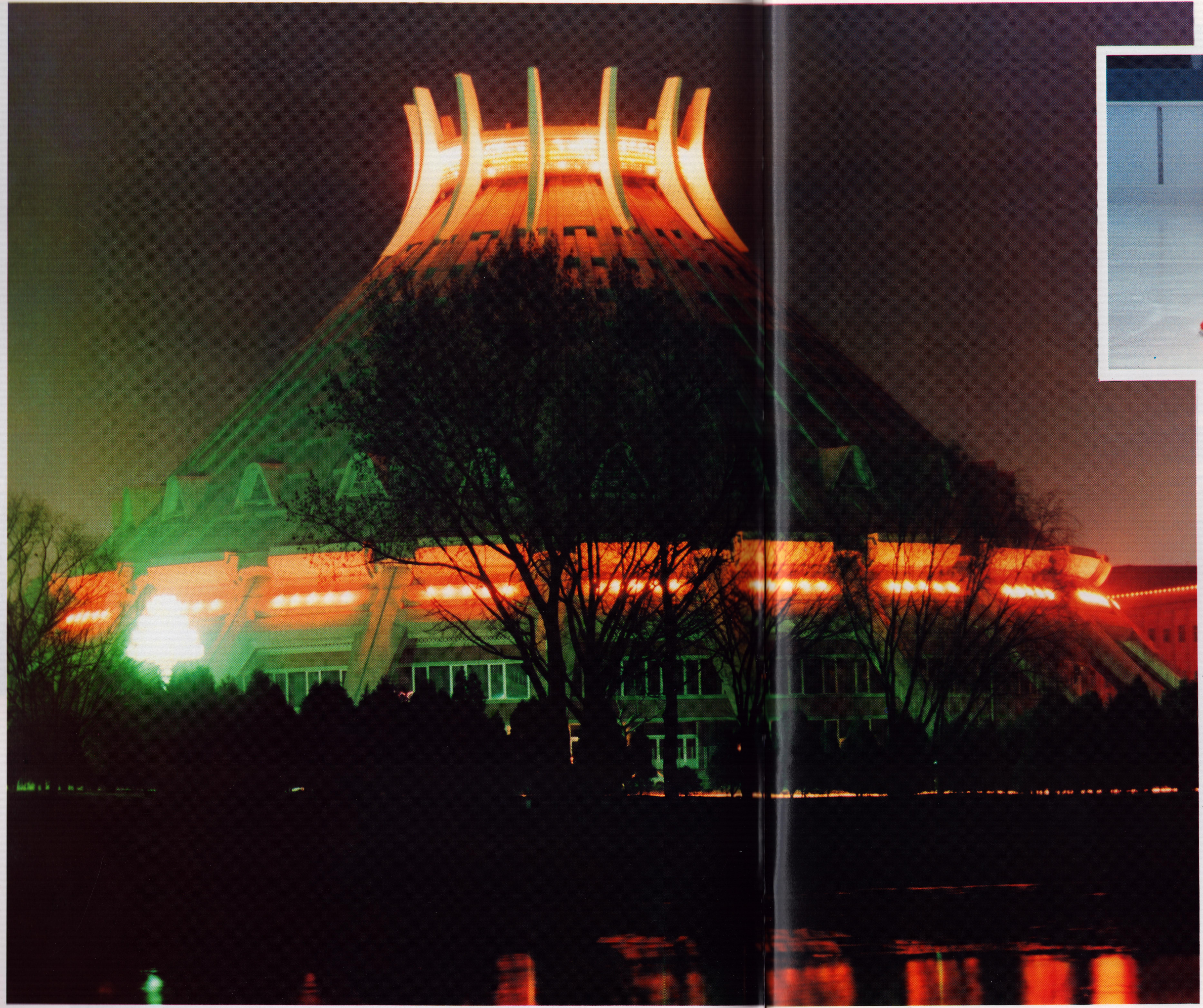


위력경기의 한 장면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장





빙 상 관







평양체육관







창광원 수영관



평양보링관



체육기자재생산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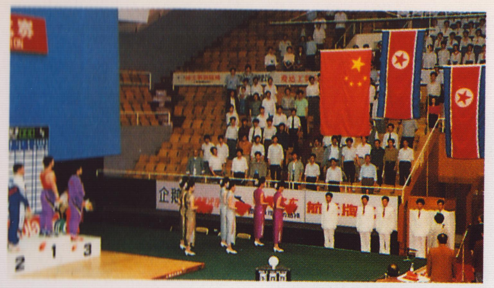
체육출판물의 일부



곳곳에 있는 체육소개판



전국체육기자재창안품전시회장



사랑의 품

> 체육인들은 나라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공로를 세운 체육인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평가해주어야 합니다.
>
> 김 정 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주체체육의 발전사는 우리 체육인들에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력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일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부모도 미처 몰랐던 재능을 찾아주시고 친히 집무실로 부르시여 앞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라는 높은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체육선수들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자주 훈련경기를 조직하시고 주체적인 기술수법과 전술체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그 나날에 선수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방방곡곡 우리 체육인들을 찾으실 때마다 일군들에게 우리는 선수 한사람한사람을 우수한 체육인으로 키울뿐아니라 당을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견결히 싸워나가는 투사로, 당의 참된 아들딸로 키워야 한다시며 화선에서 표창수여식도 하시고 팀을 100프로 당원집단으로 키워주시였으며 평화시기의 영웅이라는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수들의 땀배인 훈련장에도 찾아오시여 훈련조건을 헤아려주시고 숙소에 오시여 잠자리도 보살펴주시였으며 물김어린 취사장에도 들리시여 친히 음식맛도 보아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승리한 우리 선수들을 위하여 머나먼 이국땅에 축하문도 보내주시였고 때아닌 계절에 꽃길을 펼쳐 조국의 자랑으로 온 나라 인민앞에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밤하늘에 무수한 별과 같이 주체체육사에 전설처럼 새겨진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찌 여기서 다 전할수 있으랴.

천리혜안으로 재능을 찾아주시고 백승의 기술과 전법을 배워주시였으며 담대한 배짱을 기질로 굳혀주시여 무적의 강자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에서 이름없던 체육인들이 오늘은 체육영웅,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 체육명수로 자라났다. 그 품속에서 이미 우리 곁을 떠난지 오랜 초대 조선유술협회 위원장인 고태문, 《기계다리》허죽산, 《세계탁구녀왕》 박영순도 영생하고있다.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은 우리 체육인들을 투사로, 혁명가로 키워주는 혁명의 품이며 머나먼 인생행로에서 한발자국이라도 헛디딜세라 극진히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의 품이며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값지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주는 친어버이품이다.



박영순선수를 만나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국제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을
환영하는 수도시민들



체육선수들을 고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공로있는 선수들에게 수여된 명예칭호증서들



선수들을 소개한 우표들



체육인들에게 수여된 선물 승용차와 주택의 일부



행복한 체육인가정의 저녁시간



축하연회에 초대된 선수가족들



축 하 연 설



선수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장



당의 사랑이 깃든 선물을 받아안은 체육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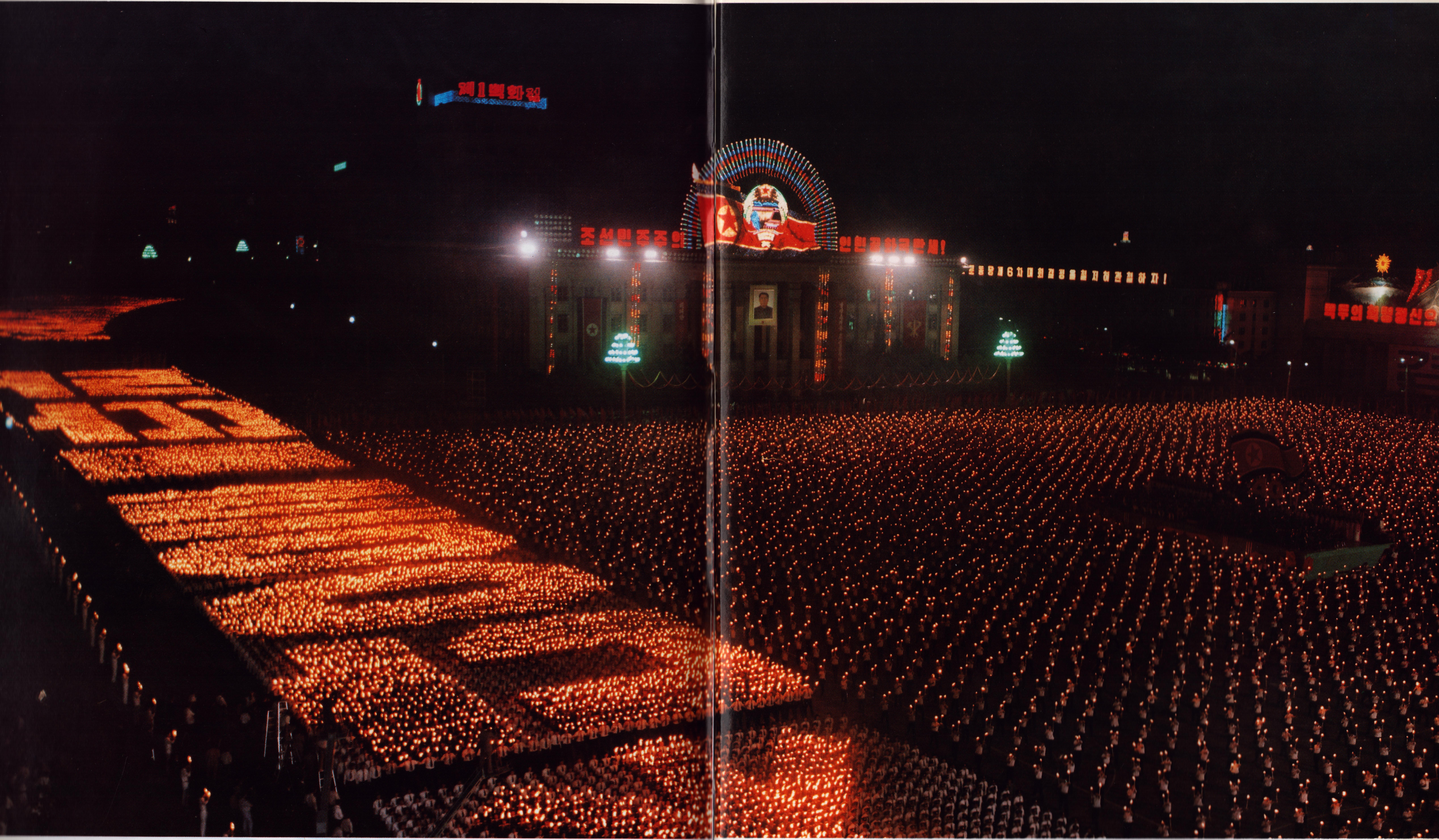


현대적으로 일떠선 국가체육위원회 청사

충성의 결의를 다지는 국가체육위원회 정무원들







장군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편찬성원
리방연, 김승필

편 집:
리복우
김경애

사 진:
로익환
김수호

글:
조명희

교 정: 리성희

장정 및
삽 화:
김득현
박래옥

장군님과 체육

낸 곳: 체 육 출 판 사
인쇄소: 외국문종합출판사 인 쇄 공 장
인 쇄: 1996. 6. 10
발 행: 1996. 6. 30
ㄱ— 66223

